밀양 첨단과학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의 배경 및 과제

2007.11

국토연구원
(김상욱·강호제)

목차

I 과업개요
II 밀양의 현황 및 위상
III 계획수립방향 및 과제
IV 제조업현황 및 경남지역 입지패턴
V 입주수요조사 결과
VI 산업단지조성의 추세와 해외사례
과업개요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목적

-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 면적: 3,300,000㎡(3.3㎢, 100만평)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기반의 육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사·개발계획 수립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조성
밀양의 현황 및 위상

인구 및 면적: 113,636인, 799㎢ (2006년, 외국인 제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주변 50km 이내 지역에 인구 364만인~40만인의 부산, 대구, 울산, 창원이 입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2010년 16만인, 2020년 19만인

부산: 364만인
대구: 250만인
울산: 109만인
김해: 44만인
양산: 22만인
창원: 50만인
마산: 43만인
진해: 16만인
거제: 20만인

도시들
산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 64 : 9 : 27 (%)
- 지역내총생산: 2002년 1조3천억원 (2010년 전망 6조4천억원)
- 광공업업체: 총 246개 업체(2005년말)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성장에 어려움

지역내총생산 현황 및 전망

<table>
<thead>
<tr>
<th>단위: 10억원, 2000년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전국(A)</td>
</tr>
<tr>
<td>경남(B)</td>
</tr>
<tr>
<td>밀양(C)</td>
</tr>
<tr>
<td>전국대비 (C/A)</td>
</tr>
<tr>
<td>경남대비 (C/B)</td>
</tr>
</tbody>
</table>

자료: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지방산업단지 1개소(조성중), 농공단지 4개소

<table>
<thead>
<tr>
<th>단지명</th>
<th>위치</th>
<th>면적 [천㎡]</th>
</tr>
</thead>
<tbody>
<tr>
<td>부국특별농공단지</td>
<td>부국면</td>
<td>108</td>
</tr>
<tr>
<td>하남농공단지</td>
<td>하남읍</td>
<td>181</td>
</tr>
<tr>
<td>상남특별농공단지</td>
<td>상남면</td>
<td>84</td>
</tr>
<tr>
<td>초동특별농공단지</td>
<td>초동면</td>
<td>317</td>
</tr>
<tr>
<td>사포지방산업단지</td>
<td>사포면</td>
<td>744</td>
</tr>
</tbody>
</table>

지방산업단지 1개소(조성중), 농공단지 4개소
부산: 신발, 의류, 기계, 섬유, 자동차, 신소재, 항공 우주 등의 산업의 집적지
울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집적지 (제조업 전국대비 12.8%)
경남: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전자정비기기 집적이 활발 (전국대비 11.0%)
대구: 섬유, 자동차, 기계 등이 집적

산업별 제조업 비중(전국대비)

<table>
<thead>
<tr>
<th>산업</th>
<th>부산</th>
<th>울산</th>
<th>경남</th>
<th>대구</th>
</tr>
</thead>
<tbody>
<tr>
<td>조선</td>
<td>46.3%</td>
<td>40.4%</td>
<td>3.6%</td>
<td>31.7%</td>
</tr>
<tr>
<td>석유화학</td>
<td>32.8%</td>
<td>3.6%</td>
<td>—</td>
<td>—</td>
</tr>
<tr>
<td>전자정비기기</td>
<td>9.4%</td>
<td>—</td>
<td>10.4%</td>
<td>—</td>
</tr>
<tr>
<td>신발</td>
<td>36.3%</td>
<td>—</td>
<td>13.7%</td>
<td>—</td>
</tr>
<tr>
<td>의류</td>
<td>9.6%</td>
<td>—</td>
<td>13.7%</td>
<td>—</td>
</tr>
<tr>
<td>기계</td>
<td>6.5%</td>
<td>28.6%</td>
<td>—</td>
<td>24.5%</td>
</tr>
<tr>
<td>섬유</td>
<td>5.8%</td>
<td>—</td>
<td>13.8%</td>
<td>—</td>
</tr>
</tbody>
</table>

부산(국가1, 지방9), 울산(국가2, 지방5), 양산(지방2), 김해(지방1), 창원(국가1, 지방1), 마산(지방1), 진해(국가1, 지방1), 거제(국가3, 지방1), 대구(지방6) 등 주변지역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예정지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분양 완료

미분양/조성중/미개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구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위치(전해)</th>
<th>산업단지명</th>
<th>면적(천㎡)</th>
<th>개발유형</th>
<th>분양률(%)</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산업단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산업단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산시(9)
- 부산과학정관
  - 면적: 1,668
  - 조성중: 99.6
- 지사(외)
  - 면적: 298
  - 완료: 77.9
- 화전
  - 면적: 2,450
  - 조성중: 99.0
- 장안
  - 면적: 1,317
  - 미개발: -
- 기룡
  - 면적: 84
  - 조성중: -

울산시(5)
- 모듈화일반
  - 면적: 865
  - 미개발: -
- 신월반
  - 면적: 2,492
  - 미개발: -
- 중산
  - 면적: 129
  - 미개발: -

창원시(1)
- 창원일반
  - 면적: 479
  - 미개발: -

마산시(1)
- 전복일반
  - 면적: 892
  - 조성중: -

대구시(1)
- 성서
  - 면적: 10,835
  - 조성중: 99.1
- 봉무
  - 면적: 1,177
  - 미개발: -

부산경제권 현황

범위: 부산, 울산, 경상남도, 2005년 기준 인구 760만인
지역내총생산 126조원 (2000년 불변가격, 전국의 17.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를 부족
김해평야 개발, 녹산산업단지앞 공유수면 및 신항 우측편의 추가
매립을 통한 산업용지 개발압력 증대
사상, 금사 공업지역 리모델링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확보 요청이 많음

부산경제 일반현황(2005년)

<table>
<thead>
<tr>
<th>단위</th>
<th>동남권</th>
<th>전국비중(%)</th>
<th>부산</th>
<th>울산</th>
<th>경남</th>
<th>전남</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구</td>
<td>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체수</td>
<td>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종사자수</td>
<td>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산 및 적정생산액</td>
<td>억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산경제 관련 현황

III 계획수립방향 및 과제
1. 상위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경상남도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 지식기반형 글로벌 생산=기술기반체제 구축을 통해 기계산업을 육성
  ● 지능형 로봇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능형 홈 산업을 육성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보완하고 바이오산업을 육성
- 산업발전과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기능 복합형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급
- 업무기능과 서비스기능이 결합된 산업업무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복합화

나.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개발
- 경상남도의 경우, 향후에도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산업이 될 것임
- 2011년까지 기계산업 등의 신규수요 9.7㎢, 재정비수요 1.4㎢ 등 총 11.4~11.5㎢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8.5~68.6㎢가 될 것으로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추가수요</th>
<th>총공급</th>
<th>2011 공장부지</th>
</tr>
</thead>
<tbody>
<tr>
<td>전국</td>
<td>15.3~17.7</td>
<td>106.3~120.0</td>
<td>618.3~632.0</td>
</tr>
<tr>
<td>경남</td>
<td>1.7~1.8</td>
<td>11.4~11.5</td>
<td>68.5~68.6</td>
</tr>
</tbody>
</table>
4.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2001~2020)
밀양에 신산업단지 조성(삼랑진읍 일대에 생명과학도시 개발)
생명공학 산업벨트와 자연□관광벨트 구축
생명공학 산업벨트 : 하동~진주~산청~거창~창녕~밀양~마산~창원~김해(생물건강소재산업, 농축사양)

2. 계획수립 방향 검토
가. 산업단지의 성격 및 특징

개발구상 및 전략구상에서의 고려사항
- 산업단지 조성의 세계적 추세와 해외사례
- 미래유망산업을 예측
- 국가산업계획의 고려
- 지역경제현황과 발전전략

국가산업단지
- 국가간산업 정보화학기술산업 등을 육성에 초점을 두
-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에 초점
(· 한~미 FTA, 한~EU FTA 이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산업단지
- 전후방향과가 큰 산업간에 연계 배치
- 기업과 기관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
- 정부기관, 관련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구성주체의 다양 추구
- 특정산업과 분야 특화로 시너지효과 발생 유도

각종 법령의 지원을 최대한 받는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산업단지)
- 산업발전법(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 부품·소재특별조정법(기술지원) 등

생태산업단지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
-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관련 법률)

나. 산업단지 개발구상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기본전략
- 집적경제 극대화를 위한 클러스터전략 추구
- 개방화에 대응
- 농경지 흐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 선정
- 국가성장동력산업, 성장유망산업 및 관련 부품산업 육지
- 부품 소재·전문의 산업단지를 계획
- 친환경적인 고객가가치, 첨단산업, 농업·생명공학관련 업종 육지
-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지
- 친환경적인 생태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를 다자인
지식기반산업과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장유망산업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산업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섬유, 의류, 신발

전문연구소

생산자서비스 기관/업체

부품개발 전문연구소

교육/연수 기관/업체

부품생산업체

거제 산업경제

능산 산업경제

창원, 마산 산업경제

대구 산업경제

울산 산업경제

개발구상 모식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개발 모형

수요창출형 지역내 「네트워크」형 개발모형

수요추종형 지역간 「네트워크」형 개발모형

목표년도: 2011년(잠정)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 ~ 2011) 이후의 공급계획이 미수립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일양 국가산업단지 타당성조사에서 825억원의 순익 발생을 추정
그러나, 산업입지수요양의 조화가 필요한 만큼, 이전수요의 발생시기, 상위계획과의 관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정은 예정될 수 있음

유치업종 선정방법
생산물의 흐름, 전후방효과 등을 파악하여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하고, 유치가 가능한 부품소재산업, 성장유망산업,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을 선정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가 가능한 전략산업을 선정

유치업종 선정방법
3. 주요 과제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의 효과적인 개발시기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대구 등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또는 분업관계 형성

선도기업(star companies)의 유치, 자체혁신 및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

수질오염, 농경지 훼손 등 환경문제의 최소화

효율성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어업의 조성과 시도 적정 장구

IV 제조업현황 및 경남지역 임지패턴
밀양시의 제조업기반은 경남지역(부산경제권) 중 창녕군과 함께 가장 낮음 →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낮은 제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밀양지역의 제조업 신규임지는 계속 증가 (2000년 이후) → 밀양지역의 입지효율성

밀양 첨단국가산업단 조성의 당위성/필요성 논의

개요

<table>
<thead>
<tr>
<th>시군구</th>
<th>1999년 전체사업체수(개)</th>
<th>1999년 제조업수(개)</th>
<th>연평균증가율(%)</th>
<th>2005년 전체사업체수(개)</th>
<th>2005년 제조업수(개)</th>
<th>연평균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경상남도</td>
<td>194,273</td>
<td>19,915</td>
<td>10.3</td>
<td>211,230</td>
<td>24,627</td>
<td>11.7</td>
</tr>
<tr>
<td>창원시</td>
<td>26,767</td>
<td>2,654</td>
<td>9.9</td>
<td>32,435</td>
<td>4,199</td>
<td>12.9</td>
</tr>
<tr>
<td>김해시</td>
<td>18,357</td>
<td>3,296</td>
<td>18.0</td>
<td>28,004</td>
<td>5,672</td>
<td>20.3</td>
</tr>
<tr>
<td>밀양시</td>
<td>7,813</td>
<td>622</td>
<td>8.0</td>
<td>7,839</td>
<td>619</td>
<td>7.9</td>
</tr>
<tr>
<td>함안군</td>
<td>4,130</td>
<td>874</td>
<td>21.2</td>
<td>4,251</td>
<td>1,014</td>
<td>23.9</td>
</tr>
<tr>
<td>창녕군</td>
<td>4,731</td>
<td>502</td>
<td>10.6</td>
<td>4,894</td>
<td>490</td>
<td>11.4</td>
</tr>
<tr>
<td>양산시</td>
<td>10,888</td>
<td>1,774</td>
<td>16.3</td>
<td>14,836</td>
<td>2,581</td>
<td>17.5</td>
</tr>
</tbody>
</table>

경남도의 제조업체수 변화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4.7% 로 증가 → 밀양, 함안, 창녕을 제외한 인접시군 모두 연평균 9%이상의 높은 제조업 증가율
특히, 밀양과 창녕의 경우 연평균제조업체 증가율은 감소 및 보합세
경남지역 연평균공장용지증가율(1999~2005)

<table>
<thead>
<tr>
<th>시군구</th>
<th>1999년</th>
<th></th>
<th>2005년</th>
<th></th>
<th>연평균공장용지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td>
<td>면적(㎢)</td>
<td>공장용지(㎢)</td>
<td>비율(%)</td>
<td>면적(㎢)</td>
<td>공장용지(㎢)</td>
</tr>
<tr>
<td>경상남도</td>
<td>10,513.36</td>
<td>50.62</td>
<td>0.48</td>
<td>10,518.34</td>
<td>61.81</td>
</tr>
<tr>
<td>창원시</td>
<td>292.66</td>
<td>13.52</td>
<td>4.62</td>
<td>292.65</td>
<td>14.48</td>
</tr>
<tr>
<td>김해시</td>
<td>463.28</td>
<td>7.28</td>
<td>1.57</td>
<td>463.26</td>
<td>11.83</td>
</tr>
<tr>
<td>밀양시</td>
<td>799.03</td>
<td>1.26</td>
<td>0.16</td>
<td>799.01</td>
<td>1.87</td>
</tr>
<tr>
<td>양산시</td>
<td>484.13</td>
<td>5.13</td>
<td>1.06</td>
<td>484.14</td>
<td>6.26</td>
</tr>
<tr>
<td>함안군</td>
<td>416.73</td>
<td>2.98</td>
<td>0.72</td>
<td>416.77</td>
<td>3.5</td>
</tr>
<tr>
<td>창녕군</td>
<td>533.06</td>
<td>0.85</td>
<td>0.16</td>
<td>532.94</td>
<td>1.07</td>
</tr>
</tbody>
</table>

- 경상남도내 평균공장용지는 전체면적대비 0.6%인 61.81㎢로, 매년 평균 4.42%씩 증가.
- 밀양의 경우 경남의 연평균공장용지증가율보다 빠르게 공장용지가 증가(평균 6.5%)로 신규제조업입지에 기인함으로써 입지수요의 증가
- 그러나 밀양의 공장용지비율은 창녕과 함께 부산경제권에서 가장 낮은 0.21%인 1.67㎢에 불과
- 여전히 낮은 공장용지 절대면적(1.67㎢)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조성에 부정적

밀양주변지역의 신규입지분석

조사자료: FEMIS(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분석방법:
- FEMIS상 공장대표번호 기준으로 개별계획입지파악
- 종목소재지 제거 후 geocoding 하여 지리적인 위치파악
- 전체 108,103개 공장임지를 확인(사업체총조사, 광공업통계와 차이)
- 공장설립일이 확인가능한 자료를 추출 후 분석
- 총 33,974개 신규입지 중 2000년 이후 입지한 신규임지를 대상으로 분석
### 2000년 이후 신규제조업 (전국)

-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경남지역에 제조업신규입지 집중
-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해 경남권으로의 제조업입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table>
<thead>
<tr>
<th>시도</th>
<th>신규제조업체개수</th>
<th>공장부지면적 [㎡]</th>
<th>종사자수(인)</th>
</tr>
</thead>
<tbody>
<tr>
<td>경기도</td>
<td>2183</td>
<td>8,203,386</td>
<td>57,586</td>
</tr>
<tr>
<td>경상남도</td>
<td>1267</td>
<td>6,872,912</td>
<td>30,385</td>
</tr>
<tr>
<td>경상북도</td>
<td>1142</td>
<td>5,620,523</td>
<td>19,465</td>
</tr>
<tr>
<td>충청북도</td>
<td>627</td>
<td>4,095,256</td>
<td>13,080</td>
</tr>
<tr>
<td>전라남도</td>
<td>581</td>
<td>4,440,309</td>
<td>8,475</td>
</tr>
<tr>
<td>전라북도</td>
<td>576</td>
<td>2,981,924</td>
<td>8,605</td>
</tr>
<tr>
<td>울산광역시</td>
<td>539</td>
<td>5,723,559</td>
<td>15,789</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521</td>
<td>1,764,855</td>
<td>14,081</td>
</tr>
<tr>
<td>강원도</td>
<td>461</td>
<td>2,336,685</td>
<td>5,928</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396</td>
<td>843,372</td>
<td>6,019</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333</td>
<td>842,364</td>
<td>6,049</td>
</tr>
<tr>
<td>대전광역시</td>
<td>267</td>
<td>135,712</td>
<td>4,020</td>
</tr>
<tr>
<td>충청남도</td>
<td>257</td>
<td>10,534,951</td>
<td>38,447</td>
</tr>
<tr>
<td>전라북도</td>
<td>233</td>
<td>1,046,952</td>
<td>5,880</td>
</tr>
<tr>
<td>전라남도</td>
<td>198</td>
<td>490,142</td>
<td>3,157</td>
</tr>
</tbody>
</table>

### 경남권 신규제조업체 현황 (2000년 이후)

<table>
<thead>
<tr>
<th>시군</th>
<th>신규제조업체개수(개소)</th>
<th>종사자수(인)</th>
<th>공장부지면적 [㎡]</th>
</tr>
</thead>
<tbody>
<tr>
<td>김해시</td>
<td>376</td>
<td>4,786</td>
<td>961,725</td>
</tr>
<tr>
<td>김산시</td>
<td>331</td>
<td>11,281</td>
<td>1,701,883</td>
</tr>
<tr>
<td>사천시</td>
<td>99</td>
<td>4,412</td>
<td>1,377,568</td>
</tr>
<tr>
<td>진주시</td>
<td>55</td>
<td>571</td>
<td>123,603</td>
</tr>
<tr>
<td>진해시</td>
<td>47</td>
<td>728</td>
<td>111,998</td>
</tr>
<tr>
<td>경산군</td>
<td>37</td>
<td>660</td>
<td>277,209</td>
</tr>
<tr>
<td>마산시</td>
<td>35</td>
<td>713</td>
<td>79,068</td>
</tr>
<tr>
<td>안성군</td>
<td>33</td>
<td>482</td>
<td>178,912</td>
</tr>
<tr>
<td>경산군</td>
<td>28</td>
<td>2,855</td>
<td>717,129</td>
</tr>
<tr>
<td>거제시</td>
<td>26</td>
<td>736</td>
<td>217,776</td>
</tr>
<tr>
<td>함평군</td>
<td>27</td>
<td>295</td>
<td>141,151</td>
</tr>
<tr>
<td>고성군</td>
<td>26</td>
<td>761</td>
<td>153,446</td>
</tr>
<tr>
<td>함안군</td>
<td>25</td>
<td>204</td>
<td>97,505</td>
</tr>
<tr>
<td>거창군</td>
<td>18</td>
<td>308</td>
<td>194,232</td>
</tr>
<tr>
<td>통영시</td>
<td>17</td>
<td>317</td>
<td>74,566</td>
</tr>
<tr>
<td>산성군</td>
<td>14</td>
<td>152</td>
<td>70,292</td>
</tr>
<tr>
<td>의령군</td>
<td>8</td>
<td>104</td>
<td>21,801</td>
</tr>
<tr>
<td>남해군</td>
<td>5</td>
<td>14</td>
<td>13,877</td>
</tr>
<tr>
<td>의령군</td>
<td>5</td>
<td>111</td>
<td>34,140</td>
</tr>
</tbody>
</table>
2005년 이후 경남권 신규제조업체수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진주시, 밀양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시, 함안군, 창원시, 거제시, 함양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통영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2005년 이후 경남권 신규제조업 부지면적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진주시, 밀양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시, 함안군, 창원시, 거제시, 함양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통영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2000년 이후 신규제조업 (경상남도)

- 경남권 신규 제조업업지는 주로 부산경제권(김해, 양산, 진주, 사천, 밀양)에 집중
- 밀양은 경남권에서 2000년 이후 신규 제조업체수 유치의 수위지역 (제조업체수 5위, 종사자수 4위, 공장부지면적 4위)
- 그러나 여전히 김해시, 양산시의 신규공장유치와 현격한 차이 존재
- 개별입지로 신규공장 유치 ⇒ 난개발문제 심화(예: 김해)
- 그러나 밀양은 아직까지 개별임지를 연한 난개발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상황 ⇒ 개별입지집적지 실태분석으로 후술

2000년 이후 신규제조업 (경상남도)
전국의 공장등록자료를 위치데이터와 결합시킨 후 대표주소지에 각종 속성정보(공장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등을 통합
공간분석기법적용(최근접군집분석) 하여 개별입지 집적지 파악
FEMIS의 공장자료중 계획입지를 제외한 개별입지만을 선택해 분석을 실시
FEMIS를 이용해 확인한 개별입지는 공장등록번호 기준으로 전국에 총77,207곳

분석결과 (전국)

전국의 개별입지 분포현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충남대전, 대구 및 부산광역시 주변, 광주광역시 주변에 집중
인구분포와 매우 유사
특히 경부고속도로 쪽과 일치하는 입지패턴
1차최근근근군집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12,893곳의 집적지 파악

10개 이상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집적지
⇒ 총 623곳

분석결과 (전국)

<table>
<thead>
<tr>
<th>시도</th>
<th>집적지개수</th>
<th>공장용지 전체면적 (㎡)</th>
<th>집적지 전체면적 (㎡)</th>
<th>평균밀집도(%)</th>
<th>평균일평균대용(인)</th>
</tr>
</thead>
<tbody>
<tr>
<td>경기도</td>
<td>211</td>
<td>2,945,596</td>
<td>6,969,090</td>
<td>45.65</td>
<td>68,376</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100</td>
<td>1,244,594</td>
<td>3,303,351</td>
<td>39.57</td>
<td>26,685</td>
</tr>
<tr>
<td>서울특별시</td>
<td>78</td>
<td>593,555</td>
<td>2,755,965</td>
<td>23.67</td>
<td>24,530</td>
</tr>
<tr>
<td>경상남도</td>
<td>66</td>
<td>1,304,743</td>
<td>3,242,688</td>
<td>39.54</td>
<td>12,977</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58</td>
<td>765,517</td>
<td>2,064,776</td>
<td>40.22</td>
<td>13,700</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36</td>
<td>407,519</td>
<td>1,305,105</td>
<td>37.28</td>
<td>7,661</td>
</tr>
<tr>
<td>경상북도</td>
<td>13</td>
<td>234,281</td>
<td>451,456</td>
<td>53.93</td>
<td>2,197</td>
</tr>
<tr>
<td>전라남도</td>
<td>12</td>
<td>164,369</td>
<td>334,958</td>
<td>36.76</td>
<td>830</td>
</tr>
<tr>
<td>충북도</td>
<td>15</td>
<td>14,974</td>
<td>124,846</td>
<td>28.00</td>
<td>165</td>
</tr>
<tr>
<td>전라남도</td>
<td>5</td>
<td>9,274</td>
<td>28,820</td>
<td>32.00</td>
<td>96</td>
</tr>
<tr>
<td>충청북도</td>
<td>2</td>
<td>8,409</td>
<td>30,353</td>
<td>50.17</td>
<td>207</td>
</tr>
<tr>
<td>경남도</td>
<td>13</td>
<td>1,304,743</td>
<td>2,342,608</td>
<td>56.23</td>
<td>12,977</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58</td>
<td>765,517</td>
<td>2,064,776</td>
<td>40.22</td>
<td>13,700</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36</td>
<td>407,519</td>
<td>1,305,105</td>
<td>37.28</td>
<td>7,661</td>
</tr>
<tr>
<td>경상북도</td>
<td>13</td>
<td>234,281</td>
<td>451,456</td>
<td>53.93</td>
<td>2,197</td>
</tr>
<tr>
<td>전라남도</td>
<td>12</td>
<td>164,369</td>
<td>334,958</td>
<td>36.76</td>
<td>830</td>
</tr>
<tr>
<td>충북도</td>
<td>15</td>
<td>14,974</td>
<td>124,846</td>
<td>28.00</td>
<td>165</td>
</tr>
<tr>
<td>전라남도</td>
<td>5</td>
<td>9,274</td>
<td>28,820</td>
<td>32.00</td>
<td>96</td>
</tr>
<tr>
<td>충청북도</td>
<td>2</td>
<td>8,409</td>
<td>30,353</td>
<td>50.17</td>
<td>207</td>
</tr>
<tr>
<td>합계</td>
<td>592</td>
<td>7,987,520</td>
<td>20,360,600</td>
<td>38.51</td>
<td>159,506</td>
</tr>
</tbody>
</table>

경기,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지역의 개별집지 집적
신규제조업체(2000년 이후)와 유사한 입지패턴⇒ 개별집지위주의 신규제조업유치
전국 및 경남권의 개별입지 집적지는 신규제조업 유치지역과 유사
즉, 2000년 이후 신규제조업은 대부분 개별입지를 통해 입지문제 해결
발생은 아직까지 개별입지문제가 심화되지 않은 신규제조업 유지지역
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개별입지로 십각한 난개발문제에 직면

<table>
<thead>
<tr>
<th>시도</th>
<th>시군구</th>
<th>집적지 개수(개)</th>
<th>집적지내 기업수(개소)</th>
<th>집적지내 전체면적(㎡)</th>
<th>집적지내 공장면적(㎡)</th>
<th>집적지평균밀집도(%)</th>
<th>집적지전체고용자(인)</th>
</tr>
</thead>
<tbody>
<tr>
<td>경상남도</td>
<td>김해시</td>
<td>42</td>
<td>557</td>
<td>1,480,667</td>
<td>855,661</td>
<td>58.19</td>
<td>7,643</td>
</tr>
<tr>
<td>경상남도</td>
<td>마산시</td>
<td>9</td>
<td>196</td>
<td>254,723</td>
<td>147,341</td>
<td>57.44</td>
<td>2,593</td>
</tr>
<tr>
<td>경상남도</td>
<td>양산시</td>
<td>11</td>
<td>134</td>
<td>455,690</td>
<td>241,923</td>
<td>52.64</td>
<td>2,142</td>
</tr>
<tr>
<td>경상남도</td>
<td>통영시</td>
<td>1</td>
<td>24</td>
<td>9,306</td>
<td>4,856</td>
<td>52.00</td>
<td>80</td>
</tr>
<tr>
<td>경상남도</td>
<td>사천시</td>
<td>1</td>
<td>11</td>
<td>43,146</td>
<td>21,776</td>
<td>50.00</td>
<td>170</td>
</tr>
<tr>
<td>경상남도</td>
<td>창원시</td>
<td>1</td>
<td>11</td>
<td>56,710</td>
<td>26,421</td>
<td>47.00</td>
<td>170</td>
</tr>
<tr>
<td>경상남도</td>
<td>진주시</td>
<td>1</td>
<td>10</td>
<td>34,359</td>
<td>7,462</td>
<td>22.00</td>
<td>165</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순위</th>
<th>시도</th>
<th>시군구</th>
<th>개별입지 증가면적(㎡)</th>
<th>전체증가증 개별입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경기</td>
<td>화성시</td>
<td>5,299,202</td>
<td>98</td>
</tr>
<tr>
<td>2</td>
<td>경기</td>
<td>포천시</td>
<td>2,094,729</td>
<td>91</td>
</tr>
<tr>
<td>3</td>
<td>경남</td>
<td>김해시</td>
<td>2,010,231</td>
<td>61</td>
</tr>
<tr>
<td>4</td>
<td>경기</td>
<td>김포시</td>
<td>1,832,150</td>
<td>97</td>
</tr>
<tr>
<td>5</td>
<td>경남</td>
<td>함안군</td>
<td>1,565,003</td>
<td>95</td>
</tr>
</tbody>
</table>
개별임지 변화패턴

부산권의 산업입지 신규수요가 급격히 증가
신규수요증가는 양산, 김해, 마산 등 주변부의 개별임지 증가로 연결
개별임지 증가로 난개발 발생과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준농림지(과거)의 규제강화로 제조업에 대한 계획임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

결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의 신규기업입지수요(2000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부산권)의 개별임지수요
즉, 신규기업이 개별임지를 통해 해결되는 상황
밀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근시군이 개별임지로 인한 난개발 경험
개별임지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 제조업에 대한 산업입지 부족이 예상
계획임지 공급이 필요
계획임지 공급은 지역균형발전과 입지수요를 고려해야 함
밀양은 경남권에서 5위의 신규 제조업 유지지역(입지수요)이면서
동시에 가장 낙후된 제조업기반을 보유(균형발전)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경남, 부산, 대구권 등 밀양시 인접지역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함.

### 주요조사내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 요 내용</th>
</tr>
</thead>
</table>
| 기업 일반현황          | \- 기업구분(순수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주력업종, 주 생산품  
\- 2006년 기준 매출액, 상시 종업원 수  
\- 현 소재지 입주년도, 부지소유(자가, 임차)  
\- 현 공장 건축년도,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  
\-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거래가격, 임대가격 |
| 입주수요 조사          | \- 입주 동기  
\-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 타 지역으로의 이전 의향 및 이전시 고려사항, 시기, 예상 규모, 희망지역, 희망 입주 유형, 희망 입주 분양 방식, 적정 분양가, 단지내 필요지원시설, 희망 공공지원 사항 |
| 밀양 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 | \- 밀양 산업단지 우선 입주 업종  
\- 밀양산업단지 입주 의향 및 현장 관리, 공장면적, 평당분양가, 적정 임대료, 희망 입주 유형, 희망 입주형태  
\- 임대료 및 분양가  
\- 밀양산업단지 입주 의향 없는 이유 중 임산지폐상의 우선순위,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희망 입주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고려여부 할 인센티브 |

---

1. 조사 개요

조사목적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경남, 부산, 대구권 등 밀양시 인접지역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함.
표본설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조사 대상</td>
<td>밀양 국가산업단 예정 업종관련 경남, 대구, 부산지역 기업체 대상</td>
</tr>
<tr>
<td>표본 크기</td>
<td>총 1,521개 기업체</td>
</tr>
<tr>
<td>표본추출방법</td>
<td>지역별 업종별 층화 추출 및 무작위추출법 병행</td>
</tr>
<tr>
<td>조사 방법</td>
<td>기업체 직접방문 면접조사</td>
</tr>
<tr>
<td>신뢰도</td>
<td>1,5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조사의 통계학적 신뢰도를 제시한다면 95% 신뢰구간에서 ±2.51%임.</td>
</tr>
<tr>
<td>조사기간</td>
<td>2007년 10월 22일 ~ 11월 6일</td>
</tr>
</tbody>
</table>

2. 입주수요조사 결과

현 소재지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 교통 및 기반시설의 양호
- 저렴한 지가
- 시장 및 관련기업과의 인접성

현 소재지에 있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은?
- 세금 및 정책지원부족 (20.4%)
- 부지확장의 어려움 (12.8%)
- 인력확보의 불편 (12.7%)
- 편의시설 불량 (4.4%)

귀사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 있다 (24.8%)
- 없다 (75.2%)
이전에 관한 응답

- 이전을 생각하는 응답자 중 약 67%의 응답자가 향후 3년 이내에 이전을 고려
  - 이전예상규모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401~500평 (16.2%), 801~1000평 (19.9%)의 확장이전을 희망
- 김해(26.7%)와 창원(20.7%)가 가장 선호되는 이전지역이며, 이전의 경우 경남지역의 김해와 창원의 뒤를 이어 3위(7.7%)
- 이전수요가 발생할 경우 김해, 창원과 경쟁이 가능
  - 이전시 산업단지를 선호하며 83%가 자가소유를 희망
  - 적정분양가로는 74% 이상이 100만원 이하로 응답
  - 임주시 필요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금융시설(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공공지원사항으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이전비지원이 전체의 80%를 차지

밀양산업단지 조성시 입주의향

- 입주할 의향이 있다 (3%),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5.8%),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모르겠다 (11%)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19.8%를 차지
  - 반면에 관심도, 입주할 의향도 모두 없다는 46%의 응답자들이 있다
- 교지분석결과 입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9.9%가 인센티브 제공시 입주의사 를 밝힘
- 따라서 인센티브와 함께 공단이 조성될 경우 총 약 27%까지 입주수요가 발생

귀사가 밀양첨단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이유는?

-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62.1%)
- 대구, 부산등 대도시권과의 지리적 근접성 (13%)
- 향후 밀양의 발전가능성 (10%)
귀사가 밀양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 협력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서 (64.6%)
-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9.6%)
-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7%)

분양가 인하 및 금융·세제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 그래도 입주할 의향이 없다(86.5%)

귀사가 밀양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센티브는?
- 분양가 및 이전자금융자 (19.6%)
- 지방세 기타 세금감면 (36.5%)
- 인프라확충(21.6%)

각종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도 입주하지 않는 이유는?
- 협력업체와의 거리가 멀다
- 자금적인 문제 (이전비용)
- 교통, 인력확보

이 설문에 대한 기타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밀양산업단 지정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기업입주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인프라확충
- 편리한 교통의 필요
- 저렴한 분양가
- 인력확보
- 이전자금지원
산업단지조성의 추세와 해외사례

클러스터정책의 일반화
- 지식, 생산, 유통, 서비스, 교육, 연구의 공간적 집적
- 공간적 집적에 의해 투입보다 큰 산출발생 (규모의경제)
- 1800년 후반 마샬의 집적경제에 1990년 마이클포터의 '경쟁적이익' 이 이론적기반
- 클러스터와 집적경제이론은 서구에서 역신클러스터, 테크노폴리스, 테크노폴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응용
- 지식,생산, 유통, 서비스, 교육, 연구의 공간적 집적

해외사례 선정원칙
- 대도시 인접형: 마르세이유, 시스타, 올란다 등
- 개방화에 대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스웨덴과 핀란드는 1980년대초부터 대대적으로 조성시작(현재 각 34, 22개의 사이언스파크를 보유)
스페인: 2001년 현재 23개 테크노파크 조성 (까달루니아, 안달루시아등)
스웨덴과 핀란드는 1980년대초부터 대대적으로 조성시작(현재 각 34, 22개의 사이언스파크를 보유)
마르세이유 테크노폴 [프랑스]

- 1989년 약 54만평의 대지에 145개 기업, 대학, 엔지니어학교, 6개의 연구소 및 주택을 입지하여 출범
- 이중 40%인 21만평이 기업과 연구소에 배분 총 3,300명의 종사자가 입주
- 마르세이유는 공항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
- 주요 입주기업으로 Cybernetics, Opal 등의 전자, 첨단기계업종 중심으로 입주
- 중심부에 단지관리본부가 입지하여 신규기업입지를 돕는 인큐베이터기능 수행
- 센터 오른쪽에 중심기능 예정지구를 조성하여 향후 기능강화 및 확장대비(노후화에 대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개방화의 사례)

-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15Km 떨어진 66만평 규모 사이언스파크
- 입주기업 직원에 신규아파트 입주권 부여하여 에릭슨, IBM 등 유치
- 1976년 에릭슨이 직원용 교육센터를 설립, IBM 입주로 비약적 발전
- 1970년 스웨덴정부가 EU 통신시장개방(1998년)을 앞두고 유럽진출의 전초지로 개방
- 다국적기업은 EU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테스트시장을 위해 시스타에 우선적 입지
- 향후 한미FTA, 한 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가능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위치: 울루시-헬싱키 북쪽 500㎞
면적: 4,110,000㎡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핀란드, 울루(Oulu) 테크노파크 (핀란드)

위치: 울루시-헬싱키 북쪽 500㎞
면적: 4,110,000㎡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동남권의 대응방안

자 레

Ⅰ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Ⅱ 동남권 산업현황 및 특징
Ⅲ 한국 산업발전 미래상
Ⅳ 동남권 산업발전 방안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산업의 위상

- GDP 규모 (2006년) 7,875억달러로 세계 12위
  - GNI : 16,291달러, 세계 29위
- 제조업 노동생산성 미국의 42.7%
- 총교역규모 5,456백만달러로 세계 12위
-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3.5%로 세계 8위, 주력기간산업 수출은 세계 5위
- 기술경쟁력 (2004) : 해외취득특허건수 31,915 (세계 3위)

한국산업의 진화와 구조변화

- 한국산업의 급성장 (GDP 기준, 2000년 불변가격)
  - 1970년 2.7조원에서 2006년 848조원
- 제조업 중 기공조립형산업의 급성장, 서비스 비중은 상승세 지속
한국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한국산업 구조변화

주 :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준(2000년 기준가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어업</td>
<td>10.9</td>
<td>6.4</td>
<td>5.2</td>
<td>4.8</td>
<td>3.7</td>
</tr>
<tr>
<td>제조업</td>
<td>26.8</td>
<td>28.4</td>
<td>26.1</td>
<td>29.0</td>
<td>31.4</td>
</tr>
<tr>
<td>기초소재형</td>
<td>(40.2)</td>
<td>(38.4)</td>
<td>(39.4)</td>
<td>(32.9)</td>
<td>(26.3)</td>
</tr>
<tr>
<td>기공소재형</td>
<td>(25.1)</td>
<td>(31.4)</td>
<td>(38.6)</td>
<td>(52.2)</td>
<td>(63.0)</td>
</tr>
<tr>
<td>생활관련형</td>
<td>(34.7)</td>
<td>(30.1)</td>
<td>(22.1)</td>
<td>(14.9)</td>
<td>(10.8)</td>
</tr>
<tr>
<td>서비스업</td>
<td>81.4</td>
<td>64.7</td>
<td>66.5</td>
<td>66.0</td>
<td>64.8</td>
</tr>
</tbody>
</tabl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각년도.

![그래프]

한국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한국산업 제조업 업종 구조변화 (명목부가가치 기준)

83년 부가가치 기준 가장 높은 비중 업종 : 음식료품, 섬유, 화학제품 등
05년 부가가치 기준 가장 높은 비중 업종 : 반도체 및 음향통신장비, 자동차 등 첨단산업 관련 업종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구성비(%)</th>
<th>구성비의 변화(%)</th>
</tr>
</thead>
<tbody>
<tr>
<td>반도체 및 음향통신장비</td>
<td>11.8</td>
<td>12.1</td>
</tr>
<tr>
<td>자동차</td>
<td>10.3</td>
<td>8.7</td>
</tr>
<tr>
<td>음식료품</td>
<td>6.2</td>
<td>8.7</td>
</tr>
<tr>
<td>화학제품</td>
<td>9.4</td>
<td>8.7</td>
</tr>
<tr>
<td>기타 수송기계</td>
<td>3.5</td>
<td>5.4</td>
</tr>
<tr>
<td>기계, 설비</td>
<td>8.8</td>
<td>4.6</td>
</tr>
<tr>
<td>컴퓨터 및 사무기기</td>
<td>0.7</td>
<td>3.1</td>
</tr>
<tr>
<td>섭유</td>
<td>2.5</td>
<td>2.9</td>
</tr>
<tr>
<td>가정용 전기전자기기</td>
<td>0.9</td>
<td>2.4</td>
</tr>
<tr>
<td>전기기계 및 장비</td>
<td>3.4</td>
<td>1.4</td>
</tr>
<tr>
<td>정밀기기</td>
<td>1.1</td>
<td>1.3</td>
</tr>
<tr>
<td>기타</td>
<td>33.8</td>
<td>40.5</td>
</tr>
</tbody>
</table>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성장주도업종의 변화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증가

- 전통 제조업 성장속도가 둔화
- 반도체, 자동차업종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빠르게 증가

동남권 산업현황 및 특징

Ⅱ
동남권 산업현황 및 특징

동남권 산업현황

동남권 시도별 기존 주력산업 및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계수 (종사자수 기준)

<table>
<thead>
<tr>
<th>산업</th>
<th>부산</th>
<th>울산</th>
<th>경남</th>
<th>동남권</th>
</tr>
</thead>
<tbody>
<tr>
<td>섬유</td>
<td>0.7</td>
<td>0.2</td>
<td>0.5</td>
<td>1.3</td>
</tr>
<tr>
<td>신발</td>
<td>4.0</td>
<td>0.0</td>
<td>0.7</td>
<td>4.6</td>
</tr>
<tr>
<td>철강</td>
<td>1.2</td>
<td>0.2</td>
<td>1.2</td>
<td>2.5</td>
</tr>
<tr>
<td>기계</td>
<td>0.7</td>
<td>0.1</td>
<td>1.5</td>
<td>2.5</td>
</tr>
<tr>
<td>자동차</td>
<td>0.2</td>
<td>0.0</td>
<td>1.5</td>
<td>1.6</td>
</tr>
<tr>
<td>조선</td>
<td>1.8</td>
<td>1.8</td>
<td>0.9</td>
<td>4.5</td>
</tr>
<tr>
<td>전자·정보기기</td>
<td>0.6</td>
<td>3.7</td>
<td>4.1</td>
<td>8.3</td>
</tr>
<tr>
<td>반도체</td>
<td>0.0</td>
<td>0.0</td>
<td>0.1</td>
<td>0.1</td>
</tr>
<tr>
<td>메카트로닉스</td>
<td>0.4</td>
<td>0.1</td>
<td>1.2</td>
<td>1.7</td>
</tr>
<tr>
<td>경영관리학</td>
<td>0.4</td>
<td>0.5</td>
<td>0.6</td>
<td>1.5</td>
</tr>
<tr>
<td>생물</td>
<td>0.1</td>
<td>0.0</td>
<td>0.3</td>
<td>0.3</td>
</tr>
<tr>
<td>철강기계</td>
<td>0.3</td>
<td>0.0</td>
<td>1.0</td>
<td>1.3</td>
</tr>
<tr>
<td>신소재</td>
<td>0.8</td>
<td>0.2</td>
<td>1.2</td>
<td>2.2</td>
</tr>
<tr>
<td>환경</td>
<td>0.4</td>
<td>0.1</td>
<td>0.8</td>
<td>1.3</td>
</tr>
<tr>
<td>화학·우주</td>
<td>2.5</td>
<td>0.0</td>
<td>6.3</td>
<td>8.8</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5년 기준".

동남권 산업현황 및 특징

동남권 기존 주력산업 집중도 (생산액)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 집중도 (생산액)
- 경남: 조선 (42.7%), 기계 (28.7%), 가전 (22.1%)
- 부산: 신발 (31.5%), 철강 (7.2%), 기계 (5.2%)
- 울산: 조선 (43.8%), 자동차 (25.8%), 섬유 (3.5%)
동남권 산업현황 및 특징

동남권 산업현황
지식기반 제조업 집중도 (생산액)

지역별 지식기반 제조업 집중도 (생산액)
- 경남 : 항공 (82.3%), 메카 (20.4%)
- 부산 : 항공 (14.3%), 신소재 (11.8%)
- 울산 : 정밀화학 (7.9%), 전자·정보기기 (3.4%)

동남권 산업 특징
동남권은 전국 성장유망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5.2%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주력기간산업의 전국대비 생산비중 34.7%를 차지
- 전국 6대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주력기간산업 중심의 생산구조
- 주력기간산업 중 조선은 전국 생산 91.5%, 산발 38.7%, 자동차 35.8%, 기계 35.5%를 점유함
-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항공산업이 전국생산의 96.6%, 메카트로닉스 24.4%, 신소재 2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 조선, 기계, 가전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항공산업이 전국생산의 82.3%, 메카트로닉스 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은 주력기간산업 중 산발, 정밀, 섬유, 기계의 전국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항공, 신소재, 환경산업이 전국비중이 높게 나타남

울산은 주력기간산업 중 조선 (43.8%), 자동차 (2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정밀화학 (7.9%), 신소재, 환경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Ⅲ 한국 산업발전 미래상

한국산업의 장기전망

- 잠재성장률 2020년까지 연평균 4.3% 전망
  - 생산인구의 증가세 둔화, 노동시간의 단축, 투자율의 점진적 하락 등 생산요소 투입증가율 둔화로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 둔화 전망
  - 기존성장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4.3%씩 증가, 제조업 규모는 환율 고정 시 세계 7위 전망
  - 2006~2020 제조업 성장률과 세계 순위 전망

<table>
<thead>
<tr>
<th>연평균 성장률 (2005~2020)</th>
<th>2020년 세계 순위</th>
</tr>
</thead>
<tbody>
<tr>
<td>고정 환율</td>
<td>원화 절상</td>
</tr>
<tr>
<td>기준 성장</td>
<td>4.9%</td>
</tr>
<tr>
<td>고성장시</td>
<td>5.6%</td>
</tr>
<tr>
<td>저성장시</td>
<td>4.0%</td>
</tr>
</tbody>
</table>

주 : 제조업 부가가치는 2000년 별반환율 기준임.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산업 발전전략 2020". 
제조업 주요산업별 수출구성비 전망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04년 72.1%에서 20년 76.7% 증가 전망
주요 산업별 수출구성비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4년</th>
<th>2010년</th>
<th>2015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td>
<td>7.6</td>
<td>8.3</td>
<td>8.3</td>
<td>8.3</td>
</tr>
<tr>
<td>조선</td>
<td>5.0</td>
<td>3.5</td>
<td>2.5</td>
<td>2.0</td>
</tr>
<tr>
<td>일반기계</td>
<td>4.4</td>
<td>5.7</td>
<td>6.1</td>
<td>6.3</td>
</tr>
<tr>
<td>섬유류</td>
<td>4.9</td>
<td>3.2</td>
<td>2.3</td>
<td>1.8</td>
</tr>
<tr>
<td>철강</td>
<td>2.8</td>
<td>2.3</td>
<td>1.9</td>
<td>1.6</td>
</tr>
<tr>
<td>석유화학</td>
<td>5.3</td>
<td>5.1</td>
<td>4.7</td>
<td>4.4</td>
</tr>
<tr>
<td>컴퓨터&amp;사무기기</td>
<td>7.4</td>
<td>5.6</td>
<td>5.8</td>
<td>5.9</td>
</tr>
<tr>
<td>항도제&amp;전자부품</td>
<td>20.0</td>
<td>20.4</td>
<td>20.7</td>
<td>20.8</td>
</tr>
<tr>
<td>영상음향기기</td>
<td>2.7</td>
<td>2.9</td>
<td>2.9</td>
<td>2.9</td>
</tr>
<tr>
<td>통신기기</td>
<td>10.2</td>
<td>15.5</td>
<td>18.8</td>
<td>20.7</td>
</tr>
<tr>
<td>주력산업계</td>
<td>70.3</td>
<td>72.4</td>
<td>74.0</td>
<td>74.7</td>
</tr>
</tbody>
</table>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유망산업 선정 필요성
- 기존의 산업구조 혹은 제품구조는 어느 시점에서 한계성에 도달. 이러한 한계성은 신기술. 신제품의 지속적 창출에 의해 극복 가능
- 미래의 유망산업군에 대한 전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투자행위 등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

유망산업 선정 기준
- 성장성 (A) : 세계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
- 경제성 (B) : 세계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기? 또 한국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공공성 (C) : 기술따라효과 등 국가전략상 중요성이 큰 산업인가?
<table>
<thead>
<tr>
<th>중분류</th>
<th>유망산업</th>
</tr>
</thead>
<tbody>
<tr>
<td>차세대 반도체</td>
<td>차세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td>
</tr>
<tr>
<td>바이오산학 장기</td>
<td>바이오산학, 바이오장기</td>
</tr>
<tr>
<td>뉴비쿼터스 네트워크</td>
<td>DMB, 블랙박스, 차세대 이동전화, 홈네트워크, 뉴비쿼터스 컴퓨팅</td>
</tr>
<tr>
<td>차세대 디스플레이</td>
<td>디지털 TV, 홀로그램 내비게이터, LCD, OLED</td>
</tr>
<tr>
<td>신개념 컴퓨터</td>
<td>작동식 컴퓨터, 고성능 지능분산 컴퓨터</td>
</tr>
<tr>
<td>차세대 자동차</td>
<td>지능형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td>
</tr>
<tr>
<td>콘텐츠산업</td>
<td>문화콘텐츠, 게임</td>
</tr>
<tr>
<td>의료서비스</td>
<td>난치병 예방 치료 서비스, 노인성 질환 치료 서비스</td>
</tr>
<tr>
<td>차세대 에너지</td>
<td>2차전지, 태양전지, 수소에너지</td>
</tr>
<tr>
<td>로봇</td>
<td>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td>
</tr>
<tr>
<td>첨단화학소재</td>
<td>인공지능 블라디미, 전자정보용 정밀화학 소재, 친환경 화학소재, 나노섬유</td>
</tr>
<tr>
<td>첨단항공 해양운송기기</td>
<td>고부가가치 선박, 차세대 무주항공</td>
</tr>
<tr>
<td>초경밀기기부품</td>
<td>초이세정공기기, MEMS, 첨단디자니, 실버의료기기, 바이오칩</td>
</tr>
<tr>
<td>첨단 기계설비 및 시스템</td>
<td>지능형 유연생산 시스템, 고기능 환경설비, 고효율 발전설비</td>
</tr>
</tbody>
</table>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동남권 산업발전 방안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현황

충남
- 자동차기계
- 신소재조선
- 전기전자
- 디자인문화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전북
- 자동차기계
- 전기전자
- 디자인문화
- 신소재조선
- 전기전자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전남
- 자동차기계
- 전기전자
- 디자인문화
- 신소재조선
- 전기전자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제주
- 자격기반
- 프로텍트
- 문화관광

강원
- 바이오
- 의료기기
- 생소재/방재
- 문화관광

울산
- 자동차
- 정밀화학
- 환경
- 로봇
- 정보가전

대구
- 바이오
- 의료기기
- 생소재/방재
- 문화관광

경북
- 바이오
- 의료기기
- 문화관광

대전
- 정보통신
- 모바일
- 의료기기
- 문화관광

부산
- 해양산업
- 기계부품
- 관광산업

경남
- 자식기반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충북
- 바이오
- 의료기기
- 문화관광

전북
- 자동차기계
- 전기전자
- 디자인문화
- 신소재조선
- 전기전자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전남
- 자동차기계
- 전기전자
- 디자인문화
- 신소재조선
- 전기전자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제주
- 자격기반
- 프로텍트
- 문화관광

강원
- 바이오
- 의료기기
- 생소재/방재
- 문화관광

울산
- 자동차
- 정밀화학
- 환경
- 로봇
- 정보가전

대구
- 정보통신
- 모바일
- 의료기기
- 문화관광

경북
- 바이오
- 의료기기
- 문화관광

대전
- 정보통신
- 모바일
- 의료기기
- 문화관광

부산
- 해양산업
- 기계부품
- 관광산업

경남
- 자식기반
- 프로텍트
- 문화관광

충북
- 바이오
- 의료기기
- 문화관광
동남권 산업발전 방안

지역전략산업 특화 육성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선정되어진 지역별 4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 각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의 집중 육성이 어려움
  - 현장에서는 재원으로 광범위한 분야 지원, 지원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통한 각 지역 전략산업의 특화 육성 분야 선정
  - 각 전략산업 중 집중 육성 분야 선정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 각 지역의 강점을 가진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유도

경상남도 4대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지식기반기계산업

특화부문
- 고부가가치 기계부품

특화유망분야
- 전동발생기, 발수스크류, 밸브, 액추에이터, 베어링, 기체구조물
- 동력전달/구동모듈
- 연료시스템 모듈
- 제어/모니터링 모듈
- 미크로프로세서스 유닛
- 극저온 부품 모듈

로봇산업

특화유망분야
- 전작로봇
- 산업용로봇
- 제조용로봇

구조부품
- 관절, 단드레리, 주행 및 이동장치

제어부품
- 유압모듈, 드라이브, 감속기, 유공압 공구기
### 동남권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목록

#### 지능형홈산업

<table>
<thead>
<tr>
<th>특화부문</th>
<th>특화유망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지능형홈 기기 &amp; 솔루션</td>
<td>네트워크 정보가전 기기, 홈오토메이션 기기,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S/W 개발</td>
</tr>
</tbody>
</table>

#### 바이오산업

<table>
<thead>
<tr>
<th>특화부문</th>
<th>특화유망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생물화학</td>
<td>기능성식품 산업용 효소, 생물고분자, 미생물대사산물, Generic, DDS, 2차 대사 산물</td>
</tr>
</tbody>
</table>

### 동남권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목록

#### 부산시 4대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table>
<thead>
<tr>
<th>전략산업</th>
<th>특화부문</th>
<th>특화유망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전력산업</td>
<td>수송기계부품</td>
<td>지속가능한 환경, 합성기, 해양구조물, 자기부상열차</td>
</tr>
<tr>
<td>부품소재산업</td>
<td>IT융합산업</td>
<td>에너지스otre부품, 전자부품, 지능형부품, 초정밀IT융합시스템</td>
</tr>
<tr>
<td>이미징산업</td>
<td>형태의 bum산업</td>
<td>종합형서비스체계 구축, 글로벌 물류사업 개발</td>
</tr>
<tr>
<td>협력산업</td>
<td>유비쿼터스 해양관광 전문성</td>
<td>해양관광전문, 유비쿼터스융합기술, 향단관련조개</td>
</tr>
</tbody>
</table>

#### 안전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유효성평가
- 진단시험기기

#### 동남권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목록

<table>
<thead>
<tr>
<th>전략산업</th>
<th>특화부문</th>
<th>특화유망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전력산업</td>
<td>수송기계부품</td>
<td>지속가능한 환경, 합성기, 해양구조물, 자기부상열차</td>
</tr>
<tr>
<td>부품소재산업</td>
<td>IT융합산업</td>
<td>에너지스otre부품, 전자부품, 지능형부품, 초정밀IT융합시스템</td>
</tr>
<tr>
<td>이미징산업</td>
<td>형태의 bum산업</td>
<td>종합형서비스체계 구축, 글로벌 물류사업 개발</td>
</tr>
<tr>
<td>협력산업</td>
<td>유비쿼터스 해양관광 전문성</td>
<td>해양관광전문, 유비쿼터스융합기술, 향단관련조개</td>
</tr>
</tbody>
</table>
동남권 전략산업별 특화분야 육성

<table>
<thead>
<tr>
<th>전략산업</th>
<th>특화분야</th>
<th>특화유망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산업</td>
<td>고기능성 자동차부품</td>
<td>의장, 냉장, 차체, 파워트레인</td>
</tr>
<tr>
<td>정밀화학산업</td>
<td>특수화학소재</td>
<td>기능성고분자/촉매, 기능성 Colorants, 정보전자동소재, 자동차부품소재, 첨단에너지소재 및 전자공정재료/가스</td>
</tr>
<tr>
<td>조선해양산업</td>
<td>조선기지재부품</td>
<td>섬벽 철조 및 해양구조물 철조</td>
</tr>
<tr>
<td>항공산업</td>
<td>항공생산기술</td>
<td>자원순환시스템, 사후처리기술</td>
</tr>
</tbody>
</table>

동남권 미래성장 유망산업 육성

동남권 공동 미래성장 유망산업

<table>
<thead>
<tr>
<th>동남권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유망산업 발굴</th>
</tr>
</thead>
<tbody>
<tr>
<td>동남권은 전반적으로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기반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음</td>
</tr>
<tr>
<td>미래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동남권 공동 선정</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동남권 미래성장 유망산업(안)</th>
</tr>
</thead>
</table>

<table>
<thead>
<tr>
<th>종분류</th>
<th>유망산업</th>
</tr>
</thead>
<tbody>
<tr>
<td>바이오산업</td>
<td>바이오산업, 바이오장기</td>
</tr>
<tr>
<td>차세대 자동차</td>
<td>지능형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td>
</tr>
<tr>
<td>차세대 에너지</td>
<td>수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td>
</tr>
<tr>
<td>로봇</td>
<td>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td>
</tr>
<tr>
<td>첨단항공 해양운송기기</td>
<td>고부가가치 선박, 차세대 우주항공</td>
</tr>
<tr>
<td>조성밀기기부품</td>
<td>초미세공정기기, MEMS, 첨단센서, 실버의료기기, 바이오칩</td>
</tr>
<tr>
<td>첨단 기계설비 및 시스템</td>
<td>지능형 유연생산 시스템, 고기능 항공설비, 고효율 발전설비</td>
</tr>
</tbody>
</table>
동남권 미래성장 유망산업 육성

동남권 지식기반제조업 육성

- 기존 전통주력기반산업의 고도화 지원
  -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통한 지식기반제조업의 육성 강화
  -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메카트로닉스, 항공 등에 제외하고는 산업의 활성화가 미약한 편임
- 지식기반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의 확대 필요
  -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 과학기술과 지역전략산업 연계 국내화를 통한 미래유망산업 육성
  - 장기적으로 지역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
  -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지원 및 육성
- 동남권 초광역 공동 과학기술기반 조성 필요
  - 첨단과학전문 산업단지 조성
  - 동남권 산학연관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공동 양성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의 성공 잠재력 보유
  - 동남권은 국내 타 권역에 비해 제조업 생산이 활발, 생산기반 양호
  - 혁신주제간 네트워킹 강화 등에 주력할 경우 최소 비용으로 클러스터 구축 효과 극대화 가능
- 동남권은 기계·자동차·조선 등 특화산업이 유사하여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특히 자동차, 조선산업의 경우 초광역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시대 지역 경제점 영향
  -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시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남해안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2극 경제체제 실현의 핵심기능 수행
감사합니다
동남권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전망과 산업클러스터 재편방향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 동남권발전연구소장)
김성권 (인제대학교 동남권발전연구소 연구원)

1. 연구배경

○ 포항~울산~부산~창원~마산~사천~광양을 연결하는 동남산업벨트는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집적지로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지가상승, 물류비용 증대 등 산업화의 성숙단계에서 경험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문제로 대기업의 해외이전 등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밀양은 부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동남산업벨트의 경부축상에 위치해 있으나 접근성 등의 문제로 대도시발전의 파급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동대구간 고속도로 개통, 동남권신공항 계획 등으로 지역개발의 미래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남경제권의 광역클러스터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시대 지역경제권의 발전과 함께 대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역할과 기능이 광역클러스터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밀양, 울진, 경산, 김천 등 동남권 중소도시의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주요기능 부여와 부산, 대구 등 대도시지역의 중추관리형 서비스산업 개발로 네트워크형 초광역클러스터 발전을 유도

○ 본 연구는 밀양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개발방향의 설정을 위해 밀양이 위치해 있는 동남경제권의 산업입지 수요전망과 산업클러스터 재편방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함
2. 동남경제권의 현황

1) 지리적 현황

(1) 공간적 범위
○ 동남경제권은 일반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일컬으나 본 연구에서는 밀양과 인접해 있는 대구, 경북지역을 포함하는 5개 광역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 지역의 총면적은 32,252㎢이고 인구는 13,047,037명으로 국내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으로 나타남

<표> 동남경제권의 면적과 인구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 (㎢)</th>
<th>인구 (명)</th>
</tr>
</thead>
<tbody>
<tr>
<td>부산울산경남</td>
<td>12342.3</td>
<td>7,809,301</td>
</tr>
<tr>
<td>대구경북</td>
<td>19,910.5</td>
<td>5,237,736</td>
</tr>
<tr>
<td>동남경제권 총계</td>
<td>32,252.8</td>
<td>13,047,037</td>
</tr>
</tbody>
</table>

자료 : 각 지역 통계연보(2005), 통계청

(2) 지역간 연계성
○ 동남권에는 고속도로가 10개, 고속철도, 공항이 2개, 항만이 5개 등 내륙 및 해양 교통의 요충지임. 특히, 국내 최대의 국제항인 부산항과 신항만이 위치해 있으며 이를 축으로 수도권과 연결하는 광역고속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음
○ 도시순환도로 및 철도 등 권역내 연계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밀양을 간통하는 대구-김해간 신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지역간 연계가 더욱 원활해짐
○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는 남북간 및 동서간 격자형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공간적인 연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표> 영남권 도로·교통 인프라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현황</th>
</tr>
</thead>
<tbody>
<tr>
<td>도로</td>
<td></td>
</tr>
<tr>
<td>고속도로</td>
<td>(10)</td>
</tr>
</tbody>
</table>
| ‧ 남북방향: 경부선, 구마선, 중앙선, 대구-대동간, 동녕-대전간  
  ‧ 동서방향: 88올림픽, 남해선, 대구-포항간, 울산, 마산외곽선, 남해 제2지선  
  ※통녕~거제~부산, 구미~포항,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중 |
| 일반국도 | (14) |
| ‧ 남북방향: 국도 3, 5, 7, 25, 31, 33, 35  
  ‧ 동서방향: 국도 2, 14, 20, 24, 28, 34, 36 |
| 공항(2)  |      |
| ‧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
| 철도(9)  |      |
| ‧ 경부선, 대구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진해선 등 |
| 고속철도(1) |      |
| ‧ 경부고속철도 |
| 항만(5)  |      |
| ‧ 부산항, 신항, 울산항, 마산, 진해항, 포항항 |


---

### <그림> 동남경제권의 지리적 현황
2) 산업경제현황

(1) 산업구조

□ 산업구조의 특징

○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서비스산업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주변 경남, 경북지역의 경우는 제조업 종사자의 지속적 증가추세를 볼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대도시지역에 비해 월등히 더딘 증가추세를 보여주며 (1)

＜표＞ 동남경제권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추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995년</th>
<th>2000년</th>
<th>2005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1차산업</td>
<td>2차산업</td>
<td>3차산업</td>
</tr>
<tr>
<td>동남 경제권</td>
<td>523,120</td>
<td>1,630,225</td>
<td>3,473,102</td>
</tr>
<tr>
<td>부산</td>
<td>37,000</td>
<td>431,000</td>
<td>1,207,000</td>
</tr>
<tr>
<td>울산</td>
<td>676</td>
<td>156,502</td>
<td>171,135</td>
</tr>
<tr>
<td>경남</td>
<td>4,444</td>
<td>473,723</td>
<td>759,967</td>
</tr>
<tr>
<td>대구</td>
<td>11,000</td>
<td>324,000</td>
<td>769,000</td>
</tr>
<tr>
<td>경북</td>
<td>467,000</td>
<td>245,000</td>
<td>566,000</td>
</tr>
</tbody>
</table>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2005), 통계청

□ 제조업 특화도 분석

○ 동남경제권의 시도별 제조업 업종구조를 보면, 일반기계, 수송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특화해 있으며, 대구와 부산 등 전통산업도시들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분야는 지역내 잘 발달해 있지 않으나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주도로 첨단전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

<표> 동남경제권의 시·도별 산업집적도 현황(Location Quotient)

<table>
<thead>
<tr>
<th>제조업</th>
<th>부산</th>
<th>울산</th>
<th>경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료품</td>
<td>1.05</td>
<td>0.14</td>
<td>1.05</td>
</tr>
<tr>
<td>담배 제조업</td>
<td>-</td>
<td>-</td>
<td>-</td>
</tr>
<tr>
<td>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td>
<td>1.16</td>
<td>0.20</td>
<td>0.52</td>
</tr>
<tr>
<td>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td>
<td>2.03</td>
<td>0.03</td>
<td>0.06</td>
</tr>
<tr>
<td>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td>
<td>5.62</td>
<td>0.18</td>
<td>0.47</td>
</tr>
<tr>
<td>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td>
<td>1.38</td>
<td>0.39</td>
<td>0.67</td>
</tr>
<tr>
<td>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td>
<td>0.55</td>
<td>0.36</td>
<td>0.66</td>
</tr>
<tr>
<td>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td>
<td>0.54</td>
<td>0.11</td>
<td>0.18</td>
</tr>
<tr>
<td>고품질, 석유정제제품 및 핵연료</td>
<td>0.35</td>
<td>10.76</td>
<td>0.30</td>
</tr>
<tr>
<td>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td>
<td>0.45</td>
<td>2.35</td>
<td>0.42</td>
</tr>
<tr>
<td>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td>
<td>0.89</td>
<td>0.42</td>
<td>1.10</td>
</tr>
<tr>
<td>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td>
<td>0.31</td>
<td>0.30</td>
<td>1.04</td>
</tr>
<tr>
<td>제1차 금속산업</td>
<td>1.57</td>
<td>1.14</td>
<td>1.17</td>
</tr>
<tr>
<td>조립금속제품 제조업</td>
<td>1.43</td>
<td>0.42</td>
<td>1.33</td>
</tr>
<tr>
<td>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td>
<td>1.19</td>
<td>0.42</td>
<td>1.81</td>
</tr>
<tr>
<td>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td>
<td>0.03</td>
<td>-</td>
<td>0.12</td>
</tr>
<tr>
<td>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td>
<td>0.88</td>
<td>0.31</td>
<td>0.81</td>
</tr>
<tr>
<td>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td>
<td>0.28</td>
<td>0.48</td>
<td>0.57</td>
</tr>
<tr>
<td>의료, 경밀, 광학기기 및 시계</td>
<td>0.74</td>
<td>0.05</td>
<td>0.92</td>
</tr>
<tr>
<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
<td>0.74</td>
<td>3.52</td>
<td>1.04</td>
</tr>
<tr>
<td>기타 운송장비 제조업</td>
<td>1.09</td>
<td>7.49</td>
<td>4.15</td>
</tr>
<tr>
<td>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td>
<td>10.7</td>
<td>0.13</td>
<td>0.27</td>
</tr>
<tr>
<td>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td>
<td>0.59</td>
<td>0.44</td>
<td>0.56</td>
</tr>
</tbody>
</table>

자료 :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4
주 :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산업특화계수 LQ > 1이면 전국에 비해「특화」
     산업특화계수 LQ = 1이면 전국평균에 비해「평균수준」
     산업특화계수 LQ < 1이면 전국평균에 비해「비특화」

(2) 산업입지
○ 동남권지역의 산업입지 변화추이를 보면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지역보다는
인접한 경남과 경북 등 중소도시지역의 산업단지 면적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산업입지의 교외지역 확산 추세를 볼 수 있음

○ 대도시지역의 지가 상승, 서비스산업화 등 경제적 변화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의 교외지역 확산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표>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면적 변화추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1년</th>
<th>2003년</th>
<th>2005년</th>
<th>2007년</th>
</tr>
</thead>
<tbody>
<tr>
<td>전국</td>
<td>622,809(100%)</td>
<td>616,591(100%)</td>
<td>63,917(100%)</td>
<td>745,567(100%)</td>
</tr>
<tr>
<td>동남경제권</td>
<td>35,048(21.7%)</td>
<td>135,783(22%)</td>
<td>138,250(21.6%)</td>
<td>153,354(20.6%)</td>
</tr>
<tr>
<td>경남</td>
<td>54,516(8.8%)</td>
<td>54,739(8.9%)</td>
<td>56,138(8.8%)</td>
<td>64,146(8.6%)</td>
</tr>
<tr>
<td>부산</td>
<td>17,327(2.8%)</td>
<td>17,284(2.8%)</td>
<td>17,249(2.7%)</td>
<td>21,112(2.8%)</td>
</tr>
<tr>
<td>울산</td>
<td>63,205(10.1%)</td>
<td>63,760(10%)</td>
<td>64,863(10%)</td>
<td>68,096(9.1%)</td>
</tr>
<tr>
<td>대구</td>
<td>18,953(3%)</td>
<td>19,265(3.1%)</td>
<td>20,441(3.2%)</td>
<td>20,483(2.7%)</td>
</tr>
<tr>
<td>경북</td>
<td>9,310(12.7%)</td>
<td>79,293(12.9%)</td>
<td>86,260(13.5%)</td>
<td>91,003(12.2%)</td>
</tr>
</tbody>
</table>

자료: 전국산업단지 통계현황 보고서(2001~2007), 한국산업단지공단
주: ( )는 전국대비 지역비중

<그림>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면적 변화추이
(3) 동남경제권의 산업용지수요 전망
○ 동남경제권내 5개 광역시도의 산업용지 신규수요 추정 결과를 보면 향후 10년간 약 83.9㎢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신규수요가 36.7㎢로 43.7%를 차지하며 부산울산 경남권은 47.2㎢로 56.3%를 차지함. 특히 울산과 경북지역의 신규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동남경제권 시도별 산업용지 신규수요 (2000년 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2011년</th>
<th>2016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동남경제권</td>
<td>83.9㎢</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산</td>
<td>12.0㎢</td>
<td>-</td>
<td>-</td>
<td>12.0㎢</td>
</tr>
<tr>
<td>울산</td>
<td>19.3㎢</td>
<td>-</td>
<td>-</td>
<td>19.3㎢</td>
</tr>
<tr>
<td>경남</td>
<td>15.9㎢</td>
<td>-</td>
<td>15.9㎢</td>
<td>-</td>
</tr>
<tr>
<td>대구경북</td>
<td>36.7㎢</td>
<td>36.7㎢</td>
<td>-</td>
<td>-</td>
</tr>
</tbody>
</table>

①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 산업입지 기본방향
○ 지역특화산업을 생산기능 중심에서 마케팅, 연구개발, 상품기획기능 중심을 구조를 전환해 나감
○ 수산가공업에 있어서는 수산가공산업지원센터, 수산가공단지의 현대화, 감천항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 설치, 다대포 해양수산테크노파크 조성, 수산물특산단지 조성, 대변항 수산웨딩단지 조성 등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신발산업에 있어서는 개발, 디자인, 판매기능을 강화하여 신발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의 생산지와의 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신발산업의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함

○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동남해안벨트경제권의 자동차부품 생산거점화 및 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능 담당
  - 자동차협동화단지 조성, 산학협동 R&D네트워크 구축, 자동차기술관련 정보 테이터베이스 구축, 자동차부품전자가상거래 기반구축, 부산국제모터쇼 정착
  - 일본 북부큐슈의 자동차부품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아시아자동차부품의 개발 공급기지로 역할 정립

○ 조선기자재산업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기술개발 및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생산의 거점화
  - 조선기자재진흥센터 설립, 조선기자재산업 협동화단지 조성, 조선기자재 전자상거래망 구축, 조선기자재 해외A/S망 구축 등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의 거점화 도모

□ 산업용지수요 추정

○ 공업지역 제조업체 평균종업원 밀도에 의한 방법
  - 산업용지면적 = \(\frac{2\text{차산업종사자수} \times \text{공업용지임지율}}{\text{종업원수} \times (1 - \text{혼합율}) \times (1 - \text{공공 공지율})}\)

  - 2020년 산업용지면적 = \(\frac{468,000 \times 0.8}{103 \times (1 - 0.1) \times (1 - 0.3)} = 57.697 \text{km}^2\)
  - 신규수요 = 2020년 산업용지면적수요 - 2000년 산업용지면적 = 12.20㎢

②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 산업입지 기본방향
○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

- 석유화학, 자동차, 비철금속 등 기존 주력전통산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 석유화학공업은 정밀화학공업으로 변화를 모색
- 자동차산업은 제품의 고급화,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관련산업의 지원, 마케팅 강화
- 조선산업은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수요의 증가와 특수선, 해양플랜트 생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술 확보
- 비철금속공업은 원광석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기술개발로 신소재 개발을 통한 구조고도화 추진

○ 신산업개발

- 첨단산업기술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한 산학연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과학산업기술육성지원
- 울산지역의 공업단지내 미개발 공업용지의 적극개발 등 공업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업종별 부품생산단지, 기술연구단지 등 연관공업단지를 조성

□ 산업용지 수요추정

○ 공업지역 제조업체 평균종업원 밀도에 의한 방법

- 2021년 울산광역시의 산업용지면적은 79.6㎢
- 신규수요 = 2021년 산업용지면적 x 2021년 산업용지면적 = 19.3㎢

③ 경상남도2)

□ 산업입지 기본방향

2) 경남발전연구원(2007)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예측」
경제전망과 산업구조전망을 볼 때 향후 경남의 제조업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증가 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자와 같은 기술집약산업들의 높은 성장, 그리고 전통산업과 첨단기술과의 접목과 IT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할 것임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컴퓨터관련 제조업, 정밀기기, 비철금속 등이 성장유망산업으로 전망되고, 특히 경남은 지역의 특성상 기계분야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업용지 수요추정

생산액당 부지 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 업종별 생산액 추정치에 부지원단위를 적용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5.9㎢가 증가하여 매년 평균 약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 부지면적 증가량은 기계제조업이 7.7㎢의 증가를 보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장비 제조업에 있어서는 생산액 향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부지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전체 산업용지 수요는 1.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업종별 산업용지 추정 결과

(단위: ㎡)

<table>
<thead>
<tr>
<th>업 종 별</th>
<th>2007</th>
<th>2011</th>
<th>2016</th>
</tr>
</thead>
<tbody>
<tr>
<td>음식료품</td>
<td>5,547,456</td>
<td>6,430,661</td>
<td>7,534,669</td>
</tr>
<tr>
<td>섬유의복</td>
<td>1,499,098</td>
<td>1,421,686</td>
<td>1,324,921</td>
</tr>
<tr>
<td>목재종이</td>
<td>1,901,610</td>
<td>2,216,762</td>
<td>2,610,701</td>
</tr>
<tr>
<td>석유화학</td>
<td>15,723,283</td>
<td>15,723,283</td>
<td>15,723,283</td>
</tr>
<tr>
<td>비금속</td>
<td>3,479,490</td>
<td>3,925,111</td>
<td>4,482,135</td>
</tr>
<tr>
<td>철강</td>
<td>6,645,159</td>
<td>7,104,585</td>
<td>7,678,868</td>
</tr>
<tr>
<td>기계</td>
<td>17,568,498</td>
<td>21,026,342</td>
<td>25,326,147</td>
</tr>
<tr>
<td>전기전자</td>
<td>3,025,500</td>
<td>3,500,668</td>
<td>4,094,628</td>
</tr>
<tr>
<td>운송장비</td>
<td>15,544,285</td>
<td>16,311,042</td>
<td>17,269,488</td>
</tr>
<tr>
<td>기타</td>
<td>471,767</td>
<td>499,660</td>
<td>534,526</td>
</tr>
<tr>
<td>제조업</td>
<td>68,029,794</td>
<td>75,070,757</td>
<td>83,871,960</td>
</tr>
</tbody>
</table>

자료: 경남발전연구원(2007)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예측」

4) 대구경북권3)

- 산업입지 기본방향
  - 섬유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 섬유산업의 기반, 인력 및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대구를 세계적 섬유도시로 육성
    - 섬유사업관련 원자재, 설비 및 기계산업, 연구, 디자인 등 지원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 산업군집 육성
  - 자동차와 기계공업 및 부품공업의 육성
    - 자동차공장 및 연관 중소업체의 적극 유치
    -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기계공업의 기술고도화 및 부품중간재 산업을 육성

3) 2011년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
○ 산학협동에 의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기반산업 육성
  - 섬유기계산업 등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풍부한 노동력과 편리한 교통 등
    임지여건에 적합하며 구미, 포항 등 인근 생산집적지와 연계성이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지역간에 첨단업종의 특화를 통한 전문화 유도
○ 산업입지와 환경오염방지를 병행 추진
  - 하천중상류지역에는 저공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호나경관리기준 강화
  -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환경오염 극소화를 위한 환경투자 강화
□ 산업용지 수요추정
  ○ 대구경북지역의 공장용지 신규수요는 2011년까지 36.7㎢로 추정됨

3) 혁신역량
  ○ 동남경제권을 비롯한 국내 주요 광역경제권별 비교를 보면 수도권의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동남경제권으로 나타남. 그러나 두지역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혁신역량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을
  ○ 동남경제권내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이 대구경북지역보다 혁신역량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혁신환경이 높게 나타남
  ○ 동남경제권 지역들의 영역별 혁신역량은 전체적으로 혁신환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혁신활동 및 노력, 혁신자원, 혁신성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동남경제권 지역에서 혁신환경과 혁신활동 및 노력이 상대적으로 얕호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데는 혁신자원이 부족한 요인 외에도 혁신활동을 혁신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역할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혁신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자원 양의 외연적인 확충 및 혁신자원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활동을 보다 조직화함으로써 혁신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체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함

<그림> 주요 권역의 영역별 혁식역량 비중

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혁신환경, 혁신자원, 혁신/활동노력, 혁신성과, 전체혁신역량 만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국</th>
<th>수도권</th>
<th>충청권</th>
<th>호남권</th>
<th>제주권</th>
<th>동남경제권</th>
</tr>
</thead>
<tbody>
<tr>
<td>GRDP(03년 가격)</td>
<td>100.0</td>
<td>48.1</td>
<td>10.7</td>
<td>10.0</td>
<td>27.4</td>
<td></td>
</tr>
<tr>
<td>종합소득세 신고액(03)</td>
<td>100.0</td>
<td>63.7</td>
<td>6.3</td>
<td>5.6</td>
<td>21.6</td>
<td></td>
</tr>
<tr>
<td>가계수지(2000)</td>
<td>100.0</td>
<td>42.7</td>
<td>10.1</td>
<td>12.0</td>
<td>29.6</td>
<td></td>
</tr>
<tr>
<td>지자체 일반회계규모(03)</td>
<td>100.0</td>
<td>42.3</td>
<td>9.8</td>
<td>12.2</td>
<td>28.7</td>
<td></td>
</tr>
<tr>
<td>고속통신망가입사업체, 가구(03)</td>
<td>100.0</td>
<td>54.2</td>
<td>8.4</td>
<td>9.5</td>
<td>24.5</td>
<td></td>
</tr>
<tr>
<td>수출입 총액(03)</td>
<td>100.0</td>
<td>42.6</td>
<td>11.4</td>
<td>9.0</td>
<td>36.7</td>
<td></td>
</tr>
<tr>
<td>혁신환경</td>
<td>100.0</td>
<td>48.9</td>
<td>9.4</td>
<td>9.7</td>
<td>28.1</td>
<td></td>
</tr>
<tr>
<td>연구기자재금액(03)</td>
<td>100.0</td>
<td>32.0</td>
<td>35.2</td>
<td>5.5</td>
<td>25.0</td>
<td></td>
</tr>
<tr>
<td>R&amp;D인력(03)</td>
<td>100.0</td>
<td>58.1</td>
<td>15.3</td>
<td>6.2</td>
<td>17.8</td>
<td></td>
</tr>
<tr>
<td>대학원생수(03)</td>
<td>100.0</td>
<td>56.5</td>
<td>11.5</td>
<td>9.5</td>
<td>19.3</td>
<td></td>
</tr>
<tr>
<td>대졸 이상 취업자(04)</td>
<td>100.0</td>
<td>58.5</td>
<td>9.2</td>
<td>7.5</td>
<td>21.6</td>
<td></td>
</tr>
<tr>
<td>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02)</td>
<td>100.0</td>
<td>64.5</td>
<td>10.1</td>
<td>4.3</td>
<td>19.7</td>
<td></td>
</tr>
<tr>
<td>혁신자원</td>
<td>100.0</td>
<td>53.9</td>
<td>16.3</td>
<td>6.6</td>
<td>20.7</td>
<td></td>
</tr>
<tr>
<td>기업혁신활동(02)</td>
<td>100.0</td>
<td>54.1</td>
<td>11.0</td>
<td>5.8</td>
<td>28.3</td>
<td></td>
</tr>
<tr>
<td>협력을 통한 기술혁신(02)</td>
<td>100.0</td>
<td>52.1</td>
<td>13.0</td>
<td>5.2</td>
<td>29.1</td>
<td></td>
</tr>
<tr>
<td>지역혁신기관(04)</td>
<td>100.0</td>
<td>35.0</td>
<td>18.8</td>
<td>14.4</td>
<td>25.9</td>
<td></td>
</tr>
<tr>
<td>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수(04)</td>
<td>100.0</td>
<td>32.8</td>
<td>17.9</td>
<td>14.3</td>
<td>27.9</td>
<td></td>
</tr>
<tr>
<td>정보화설비, 이용요금(03)</td>
<td>100.0</td>
<td>71.5</td>
<td>5.2</td>
<td>5.9</td>
<td>15.0</td>
<td></td>
</tr>
<tr>
<td>국제우편물(소포/특수우편물, 01)</td>
<td>100.0</td>
<td>75.1</td>
<td>4.4</td>
<td>3.0</td>
<td>15.7</td>
<td></td>
</tr>
<tr>
<td>연구개발비(03)</td>
<td>100.0</td>
<td>65.1</td>
<td>17.0</td>
<td>3.4</td>
<td>13.7</td>
<td></td>
</tr>
<tr>
<td>혁신활동/노력</td>
<td>100.0</td>
<td>55.1</td>
<td>12.5</td>
<td>7.4</td>
<td>22.2</td>
<td></td>
</tr>
<tr>
<td>특허출원건수(03)</td>
<td>100.0</td>
<td>73.4</td>
<td>7.4</td>
<td>5.0</td>
<td>13.3</td>
<td></td>
</tr>
<tr>
<td>sci 논문수(01)</td>
<td>100.0</td>
<td>52.8</td>
<td>19.9</td>
<td>7.9</td>
<td>16.9</td>
<td></td>
</tr>
<tr>
<td>지역벤처기업(04)</td>
<td>100.0</td>
<td>68.8</td>
<td>9.5</td>
<td>4.8</td>
<td>15.7</td>
<td></td>
</tr>
<tr>
<td>지식기반산업 생산액(02)</td>
<td>100.0</td>
<td>64.8</td>
<td>9.7</td>
<td>3.3</td>
<td>21.1</td>
<td></td>
</tr>
<tr>
<td>혁신성과</td>
<td>100.0</td>
<td>65.0</td>
<td>11.6</td>
<td>5.2</td>
<td>16.7</td>
<td></td>
</tr>
<tr>
<td>전체혁신역량</td>
<td>100.0</td>
<td>55.7</td>
<td>12.5</td>
<td>7.3</td>
<td>22.0</td>
<td></td>
</tr>
<tr>
<td>인구(2004)</td>
<td>100.0</td>
<td>48.0</td>
<td>10.0</td>
<td>10.8</td>
<td>26.9</td>
<td></td>
</tr>
</tbody>
</table>


3. 동남경제권의 발전전망

1) 동북아경제권의 부상

○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성장이 세계성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무역규모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과 비슷한 규모를 보여줌

○ 동북아경제권에는 한국의 수도권, 동남경제권 그리고 중국의 라오동(遼東)·산둥 (山東) 반도, 상하이(上海) 광역권, 그리고 일본의 동경, 오사카 그리고 대만 등이 포함됨. 이들 지역은 부산과 다롄(大連)·톈진(天津)·톈타이(煙臺)·청다오(青島)·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항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운집해 있고, 6만여 개에 이르는 전자·기계 부문 유력 부품 제조업체도 몰려 있음

○ 동북아 경제권의 역내 무역량은 55%대로 공통 화폐를 갖고 있는 EU지역의 60%에는 못미치나 NAFTA의 역내 무역 비율은 30%를 넘어서는 수준임. 한중일간의 FTA가 성사될 경우 역내 무역량은 EU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동남경제권의 경우 성장의 중심은 부산으로 동아시아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이상적인 컨테이너항을 갖고 있음
- 특히 한국기업들이 생산거점을 국내에서 중국 서해안의 톈진·톈타이·칭다오·상하이·다롄 등 중국 관세특구(FTZ)로 옮겨가며 따라 설비나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전자,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부산항과 국제공항의 국제물류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개방형 국토축 구상과 동남경제권
- 동북아지역의 성장에 발맞춰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제4차국토계획수정계획’에 따르며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 남해안축은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중국~일본)벨트로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함.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 서해안축은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신의주~중국)벨트로 중국 등 동북아를 항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동력 육성함.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완향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 동해안축은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벨트로 유리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함.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을 중심에 두고 여타지역을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개 권역으로 세분하고 있음
- 지역 소권역의 수도권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갖기가 힘들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화산업의 육성도 힘들게 되어 있어 중부경제권(강원충청권), 호남경제권, 영남경제권의 4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단일경제권에서 복수경제권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3) 동남경제권의 비전 : 동북아 7개 경제권으로 도약

-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은 국가간 경쟁보다는 지역 블럭경제권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부산과 경남이 위치한 동남경제권은 동북아지역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으로 편입되지 못해 점차 낙후되는 현상 초래

- 현재 상태로는 한국의 수도권, 일본의 관동권, 관서권, 중국의 북경권, 장강권, 주강권 등 6개 지역경제권역이 동북아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 동남경제권의 비전은 수도권과 함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7대 지역경제권으로 발전하는 것임
동북아지역에서 동남경제권을 설정할 경우, 기능적 측면에서 국제적 분업 및 네트워크가 필요함

- 해외지향적 관점에서 “동북아 신산업중심 경제권” 형성을 기본비전으로 하여,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이 설정되어야 함.
- 동남경제권을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식기반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국제적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해 가는 것임
- 남해안 연안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은 생산과 더불어 국제비지니스, 금융, 물류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내륙의 대구경북지역은 생산과 더불어 R&D와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
4. 동남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재편방향

1)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현황
   ○ 지역의 산업기반, 혁신여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의 육성의지를 반영 시도별 각각 4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선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하에 2000년부터 단계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
대구
○ 메카트로닉스
○ 전자·정보기기
○ 섬유
○ 생물

경북
○ 전자·정보기기
○ 신소재·부품
○ 생물·항해
○ 문화·관광
○ 전자정보
○ 생물건강
○ 해양생명환경

자료: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 지역전략산업의 상호보완성 및 연계성 검토

(1) 업종별 상호보완성

○ 수송기계(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 수송기계분야는 전국에서 동남경제권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산업분야로 소재·부품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연계체계가 잘 발달해 있음
- 핵심소재인 철강금속산업의 경우 포항~부산~창원~광양에 이르는 동남해안 벨트상에 발달해 있음
- 수송기계분야의 부품산업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구~밀양~김해~경주를 축으로 발달해 있으며, 조선기자재는 거제~진해~김해에 분포해 있음. 항공기부품의 경우 사천~창원베트상에 발달
- 완제품의 경우 자동차는 울산~부산~창원에 대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조선산업은 울산~거제~진해에 발달해 있음. 항공기조립공장은 사천에 국내 유일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음
- 기술과 인력, 자금 등 전문서비스분야는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지역에 잘 발달해 있으며 생산기술의 지원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입지

○ 수송기계산업의 클러스터의 발달과정을 보면 70년대 이후 남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포항~울산~양산~김해~창원~마산~사천~광양에 이르는 횡축의 국내최대 산업벨트가 발달해 있음. 이와 더불어 90년대 이후 조선산업의 발전과 함께 거제~진해~김해~밀양~경산~대구에 이르는 경부종축의 산업벨트가 새로이 발달해 가고 있음

○ 대구·경북·부산지역의 기계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금속(포항), 유리(구미) 등이 공급측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기계류제품(창원), 자동차·조선(울산), 전자(구미) 등이 수요측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대구의 메카트로닉스산업이나 경남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화가 필요한 산업으로 경북(구미)의 IT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②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지능형홈 등)

○ 메카트로닉스분야는 기계기술과 전자, 나노가 어우러진 첨단산업으로 동남경제권의 미래유망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기계와 가전산업의 발달로 대기업주도의 생산기반은 잘 발달해 있으나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아 성장에 한계를 노출

- 메카트로닉스의 부품소재 가운데 공작기계의 경우 양산~김해~밀양을 축으로, 그리고 로봇부품은 창원~김해, 지능형홈은 창원~마산~대구축 상에 발달해 있음. 메카트로닉스분야는 특히 전자부품산업의 발달이 요구되나 동남권의 경우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구미가 핵심생산지역이나 창원과는 잘 연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완제품의 경우 공작기계는 창원, 로봇은 창원, 구미, 그리고 지능형홈은 창원, 마산, 구미에 발달해 있음
- 기술과 인력, 자금 등 전문서비스분야는 부산과 창원, 대구 등 대도시지역에 잘 발달해 있으며 최근 밀양의 부산대 나노센터가 입지하여 메카트로닉스분야 기술공급의 새로운 기지로 발전이 기대됨

○ 메카트로닉스(공작기계,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산업의 클러스터 발전과정을 보면 창원의 일반기계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을 양축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창원마산~김해양산~밀양~대구~구미의 첨단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메카트로닉스산업의 클러스터 발전과정을 보면 창원의 일반기계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을 양축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창원마산~김해양산~밀양~대구~구미의 첨단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동남경제권 메카트로닉스산업 클러스터
3. 정보통신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기기)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구미전자, 창원마산광통신, 울산디스플레이, 부산영상IT를 축으로 개별 특화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간 연계는 부족한 실정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기술과 인력, 자본은 대부분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 집적되어 있으며 이들 기능과 생산집적지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및 기술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남권지역의 벤처창업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클러스터는 대구구미~창원마산~부산울산을 연결하는 삼각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양은 이들 연결네트워크상에 있는지 않으나 지역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소재 및 지원분야의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바이오산업

○ 바이오산업의 경우 동남권 지역의 잠재력은 높으나 가장 발달이 늦은 분야로 부산양산김해를 축으로 하는 헬스의생명산업, 대구경북을 축으로 하는 생물소재 및 한방의료, 그리고 진주통영을 축으로 하는 농생명, 해양바이오 분야로 분리 육성되고 있음

○ 밀양은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벨트 상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생명과학분야로 특화되어 있어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5. 밀양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사점

1) 동남권 산업입지 수요의 확산 전망
   ○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지가 상승과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화를 감안해 볼 때 제조업 단지의 추가 수요는 교외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밀양은 신항만~김해공항~대구를 연결하는 신강부 드로드 코어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제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2) 동남경제권의 산업클러스터 재편과 연계
   ○ 자동차, 조선분야를 포함하는 수송기계산업의 경우 기존 남해안산업벨트와 더불어 거제~진해~밀양~경산~대구를 연결하는 중부의 새로운 클러스터 형성되고 있어 밀양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로봇, 정밀기계분야를 포함하는 첨단제조산업은 기계산업과 전자산업을 융합

＜그림＞ 동남경제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하는 첨단분야로 구미~대구~창원마산이 주력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며 축생에 위치한 밀양과 김해도 성장유망산업으로 예상됨. 특히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와 인제대학교가 나노분야에 특화해 있어 기술과 인력공급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대구/구미~마산/창원~부산/울산의 삼각축 벨트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밀양은 직접적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바이오산업의 경우 대구경북~부산김해를 연결하는 생물소재, 의료, 해양바이오의 축생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농생명분야에 특화해 있어 장기적 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와 연계한 비즈니스형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육성이 필요

◦ 첨단산업의 수출 및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동남경제권에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

◦ 남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역할 수행으로 관광 및 비즈니스 환경의 극대화 및 기존 인프라(국제항, KTX, 고속도로 등)와의 연계를 통한 고속물류시스템 확충효과 기대

◦ 전세계적으로 국제공항을 중심축으로 하는 첨단산업비즈니스도시인 Aerotropolis (에어로트로폴리스)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예를들면, 홍콩의 란타우섬( сочета공항, 디즈니랜드), 한국의 영종도(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미국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국제공항,첨단과학산업단지) 등

◦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항공물류수요에 적합한 경박단소형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며, 생산과 더불어 기술개발, 비즈니스 활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에어로트로폴리스형 첨단복합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
참고 문헌

경남발전연구원(2007)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예측’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011년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
밀양시(2003), ‘밀양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밀양지역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2007. 11. 27

성균대학교 박영철 (도시계획및부동산학부)

Contents

Ⅰ. 머릿말

Ⅱ.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특성과 효과

Ⅲ. 산업입지정책의 방향

Ⅳ. 경남지역의 산업입지 실태

Ⅴ. 밀양 지역의 산업입지 실태와 문제점

Ⅵ. 밀양지역 산업단지 추진방안

Ⅶ. 맺음말
I. 머릿말

- 40년간 산업화 정책은 성공적임
-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빠른 전환

여건 변화

1.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2. 정보화 기술혁신
3. 지방자치의 정착
4. 환경문제의 높은 관심
5. 저성장 시대의 도래

밀양: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며 대도시 인근 지역

- 실적과 여건변화를 감안한 밀양지역의 산업단지 추진방안 (검토)

II. 산업입지정책의 방향

1.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
2. 산업입지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국내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

1960년대
수출산업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산업단지 내실화와 농공단지 개발

1990년대
신산업지대 조성과 법률 통폐합

2000년대
- 전문화된 산업단지 및 소규모 산업단지
- 국가임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 벤처, 문화, 정보통신 등 특성 산업 육성

국내 산업입지 관련 주요 제도

산업단지 개발제도

사용권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정권자: 국가산업단지 - 건교부장관
  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산업단지 관리제도

사용권
- 근거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관리권자: 국가 산단 - 산자부 장관
  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유사 제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국내 산업단지 지원제도

### 기반시설 지원

### 개발비용 융자

### 세제지원

### 산업단지 개발현황 (2006)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국가산업단지</th>
<th>지방산업단지</th>
<th>농공단지</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개소</td>
<td>면적</td>
<td>개소</td>
<td>면적</td>
</tr>
<tr>
<td>계</td>
<td>575 (100.0)</td>
<td>1,185.0 (100.0)</td>
<td>35 (100.0)</td>
<td>899.9 (100.0)</td>
</tr>
<tr>
<td>수도권</td>
<td>77 (13.4)</td>
<td>380.6 (32.1)</td>
<td>6 (17.1)</td>
<td>349.5 (38.8)</td>
</tr>
<tr>
<td>중부권</td>
<td>163 (28.3)</td>
<td>135.1 (11.4)</td>
<td>6 (17.1)</td>
<td>54.1 (6.0)</td>
</tr>
<tr>
<td>서남권</td>
<td>108 (18.8)</td>
<td>346.2 (29.2)</td>
<td>8 (22.9)</td>
<td>271.9 (30.2)</td>
</tr>
<tr>
<td>동남권</td>
<td>186 (32.3)</td>
<td>308.8 (26.1)</td>
<td>13 (37.1)</td>
<td>219.4 (24.4)</td>
</tr>
<tr>
<td>기타</td>
<td>41 (7.1)</td>
<td>14.1 (1.2)</td>
<td>2 (1.2)</td>
<td>5.1 (0.6)</td>
</tr>
</tbody>
</table>
밀양 산업단지


부지면적 증가세 둔화: 4.9%(81-91)→2.8%(91-03)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체 (만개)</td>
<td>3.3</td>
<td>5.0</td>
<td>7.2</td>
<td>9.7</td>
<td>11.3</td>
<td>8.0, 3.8</td>
</tr>
<tr>
<td>종업원수 (만인)</td>
<td>204</td>
<td>274</td>
<td>292</td>
<td>290</td>
<td>273</td>
<td>3.6, -0.6</td>
</tr>
<tr>
<td>생산액 (조원)</td>
<td>46.7</td>
<td>92.0</td>
<td>205.7</td>
<td>380.6</td>
<td>657.5</td>
<td>16.0, 10.2</td>
</tr>
<tr>
<td>부가가치 (조원)</td>
<td>15.4</td>
<td>32.9</td>
<td>86.4</td>
<td>158.8</td>
<td>251.6</td>
<td>18.8, 9.3</td>
</tr>
<tr>
<td>부지면적 (만㎡)</td>
<td>2,340</td>
<td>2,702</td>
<td>3,757</td>
<td>4,806</td>
<td>5,208</td>
<td>4.9, 2.8</td>
</tr>
<tr>
<td>건물면적 (만㎡)</td>
<td>5,729</td>
<td>7,611</td>
<td>12,660</td>
<td>18,164</td>
<td>20,284</td>
<td>8.3, 4.0</td>
</tr>
</tbody>
</table>

총량은 국가산업 중심, 90년대 이후 지방 산단 중심
산업입지 변화추이 (2), (3)

산업단지 비중의 증대 (2) (계획입지중심추진)

공장용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3)

- 공장의 용적률: 크게 증가
  - 24.5%(1981) -> 39.0%(2001)

산업입지 변화추이 (4)

누적치: 국가산업단지 중심, 90년대 이후: 지방산업단지 중심

- 누적지: 국가산업단지(75.9%), 지방산업단지(19.7%)

- 추이: 90년대 이후에는 지방산업단지 중심
  - 10.7%(80년대) -> 69.7%(90년대) -> 87.6%(2000년 이후)

<table>
<thead>
<tr>
<th>주요</th>
<th>고도화 비율</th>
<th>공장용지 비중</th>
<th>공장용지 비중</th>
<th>공장용지 비중</th>
<th>공장용지 비중</th>
<th>공장용지 비중</th>
</tr>
</thead>
<tbody>
<tr>
<td>단계</td>
<td>23%(1.0)</td>
<td>69.4%(1.2)</td>
<td>29%(1.5)</td>
<td>79.3(1.9)</td>
<td>62.6%(2.0)</td>
<td>1.1%(1.0)</td>
</tr>
<tr>
<td>국가</td>
<td>13.9%(1.5)</td>
<td>83.4%(1.0)</td>
<td>22.1%(1.2)</td>
<td>33.3%(1.3)</td>
<td>41.8%(1.2)</td>
<td>89.3%(1.0)</td>
</tr>
<tr>
<td>지방</td>
<td>4.9%(1.0)</td>
<td>24.2%(1.5)</td>
<td>20.3%(1.2)</td>
<td>31.0%(1.1)</td>
<td>29.3%(1.0)</td>
<td>28.3%(1.0)</td>
</tr>
<tr>
<td>종합</td>
<td>-</td>
<td>-</td>
<td>25.5%(1.0)</td>
<td>19.6%(1.3)</td>
<td>5.9%(1.5)</td>
<td>51.5%(1.0)</td>
</tr>
</tbody>
</table>
밀양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1)

산업입지 개발 효과

공업지적
기반의 구축
- 지방의 산업기반형성
- 취업기회의 확대

도지이용의
계획적 이용유도
- 도지이용의 난개발 방지
- 신규 및 이전공장 집단화

산업단지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2)

산업입지 개발제도의 문제점

공급자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임지수요 대응이흡
임지의 고비용 구조와 지원이흡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복잡
III. 산업입지정책의 방향

1. 입지 여건의 변화와 전망

2. 외국 제도의 특성

3. 산업입지 정책 방향
2. 외국 제도의 특성

1) 외국의 산업입지 제도의 특징

- 대부분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투자용도지역 설정이나 환경규제 등의 입지규제 정책의 강화
- 대부분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성장부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자원의 각종 지원책 마련

2) 외국의 산업입지 제도의 시사점

- 기존의 입지의 활용
- 기존의 입지의 활용
- 기존의 입지의 활용
- 기존의 입지의 활용
- 기존의 입지의 활용

주요국의 시사점
2. 외국 제도의 특성

3) 지식기반산업입지 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A. 소규모 단지의 점진적, 단계적 개발
B. 공공부문 주도의 개발
C. 관리 및 기업지원 기능의 강조
D. 다양한 지원

3. 산업입지 정책의 방향

산업입지 정책의 주요방향

- 산업입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지식기반산업입지의 합리적 공급
- 기존 산업단지의 계획적 재정비
-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임대산업단지 및 임대공장의 공급확대
- 국가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
- 지방의 자율적인 산업단지육성, 책임경영 강화
- 위탁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지를 위한 입지공급 방안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른 산업입지 부문의 대응
-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Ⅳ. 경남지역의 산업입지 실태

1. 추이와 실태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1. 추이와 실태

- 지속적인 증대
-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율을 보임
  - 전국 증가에도 못 미침
  - 답보상태
- 개별입지 증대
  - 부산광역시 인근 지역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발생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 마산 자유 무역 지역, 상평공단 등
밀양 산업단지

1. 추이와 실태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전국</td>
<td>234.0</td>
<td>270.2</td>
<td>375.7</td>
<td>480.6</td>
<td>502.3</td>
<td>520.8</td>
</tr>
<tr>
<td></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r>
<td>부산</td>
<td>12.3</td>
<td>12.2</td>
<td>14.6</td>
<td>16.5</td>
<td>16.9</td>
<td>16.9</td>
</tr>
<tr>
<td></td>
<td>(5.3)</td>
<td>(4.5)</td>
<td>(3.9)</td>
<td>(3.5)</td>
<td>(3.4)</td>
<td>(3.7)</td>
</tr>
<tr>
<td>울산</td>
<td>26.8</td>
<td>32.7</td>
<td>38.1</td>
<td>41.8</td>
<td>48.4</td>
<td>50.6</td>
</tr>
<tr>
<td></td>
<td>(11.5)</td>
<td>(12.1)</td>
<td>(10.1)</td>
<td>(8.7)</td>
<td>(9.6)</td>
<td>(9.7)</td>
</tr>
<tr>
<td>경남</td>
<td>33.4</td>
<td>31.2</td>
<td>44</td>
<td>52.1</td>
<td>57.1</td>
<td>59.3</td>
</tr>
<tr>
<td></td>
<td>(14.3)</td>
<td>(11.5)</td>
<td>(11.7)</td>
<td>(10.8)</td>
<td>(11.4)</td>
<td>(11.4)</td>
</tr>
</tbody>
</table>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1)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개념 적용 (1)

기존 개념

✔ 생산 위주
  ▪ 제조업 중심
  ▪ 개발 중심
  ▪ 신규개발 위주
  ▪ 분양 중심
  ▪ 국내 개발 위주

새로운 개념

✔ 지원기능 강화: 생산주거, 물류,문화,교육,복지,체육 등
  ▪ 1.5차, 2차, 2.5차 산업 포함
  ▪ 개발 + 관리 포함
  ▪ 신규 개발+기존 단지 재정비
  ▪ 분양+임대 중심
  ▪ 국내+해외+북한개발 포함

대 상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1)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개념 적용 (2)

기존 개념

✔ 단지중심
  ▪ 단지개념의 병면개발
  ▪ 특정 산업 중심 대규모 개발
  ▪ 공공위주

새로운 개념

✔ 지구단지시설 포함
  ▪ 공간개념의 임체개발
  ▪ 소규모/맞춤형 단지 개발
  ▪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1)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개념 적용(3)

지원
기존 개념
기반시설 지원위주
○ 기존 해당 시 무조건 지원
○ 시행자 중심

새로운 개념
맞춤형 지원
✓ 개발비용/조세지원 확대
✓ 지역별/대상별 차등지원
✓ 입주기업 포함

2)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확대

1) 복합적인 기능의 집적체 추진
2) 자기부담이 적은 자유로운 임대형 입지 선호
3) 임대형 공장을 수요 중대 이상
4)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임대공장 공급
5) 아파트형 공장 개념의 확대적용

* 대도시 인근 및 중소도시 중심
* 신규 산단 개발 및 기존 산단 재정비시 적극 고려
3) 지방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지방의 산업단지개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계획과 추진이 바람직

지방의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 시행과 책임

4) 산업단지 개발의 지원확대

재원확보방안의 확대 및 다양화

산업단지의 지원의 체계화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의 합리적 지원

기업도시 제도의 효과적 활용

* 각종 지원시책의 적극 활용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5) 환경친화적 입지개발

- 경제적인 과도한 개발로 환경문제 발생
- 적지에 대한 산업단지 제도 개선
- 지역토목적 개발
- 개별 개발

* 준 산업단지 제도 적극 활용

6) 국가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

1. 클러스터 추진의 핵심적 거점

2. 국가산업단지 제도의 개편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중심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

3. 지방에 의한 자율적 운영의 검토
   - 국가산업단지의 기능 정착 후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7)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

-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 업종별 전문화 단지의 조성
- 국가별 전용단지 공급
- 핵심기업 연계단지 조성 및 공급 등을 추진

* 신규 외국인 전용공단 및 마산 자유무역지대 정비 포함

2.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외국인 전용공단 개발을 통한 직접고용 효과>

<table>
<thead>
<tr>
<th>산업단지규모</th>
<th>외국인투자유치(백만$)</th>
<th>고용창출(명)</th>
<th>20대고용창출(명)</th>
<th>산업단지사업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만평</td>
<td>620</td>
<td>7,450</td>
<td>1,490</td>
<td>4,200~5,700</td>
</tr>
</tbody>
</table>

주: 천안 사례 중심
Ⅴ.밀양 산업입지 실태와 문제점

밀양 산업구조와 제조업 실태

산업구조: 전형적인 농업기반 산업구조
- 1차산업 64%, 2차산업 9%, 3차산업 27%

제조업 실태: 극히 미비
- 사업체수: 전국 0.1%, 경남 1.4%
- 종업원수: 전국 0.1%, 경남 1.2%

제조업 구조: 경쟁력이 낮은 산업 중심
- 비금속 광물: 19.7%
- 음식료품: 18.1%
- 섬유 9.4%, 조립금속 9.4%, 기타 기계 및 장비 9.4%

※ 취약한 산업구조와 제조업 실태
밀양 산업단지

밀양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추이

- 2차산업 구성비 추이
  - 사업체수: 10.2%(1994) → 8.4%(2004)
    * 1.8% 감소
  - 종업원수: 27.1%(1994) → 18.5%(2004)
    * 8.6% 감소

열악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화 진행

산업단지 현황

- 4개(총 690 천m²)의 농공단지뿐임
  - 현재 지방산업단지 1개 추진 중 (사포, 744천m²)

실질적인 산업단지는 없는 실정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할만한 여건 미진
밀양 산업단지

밀양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발전략

기본목표
-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 도.농이 하나되는 도농 복합도시
- 대도시 배후 지원도시
-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교통 물류 산업도시

개발전략
- 21세기 부응하는 도시기능 재정립
- 동부경남의 교육, 문화, 행정, 관광 중심
- 국민소득 3만달러의 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효율화로 도시 경제력 제고

제조업 유치업종
-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
- 첨단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 전략적 육성
- 부산, 진해 신항 및 남부권 신항 건설 관련 산업 육성

밀양 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의 산업입지 부분 검토결과

- 현실성이 낮음
- 타당성 제고 방안 필요
- 현실적 대안으로 산업단지 필요
- 첨단 업종 등이 가능한 실질적 추진 방안 필요
VI. 밀양지역 산업단지 추진방안

밀양 산업단지

<밀양지역에 산업단지가 필요한가?>

- 현재 “산업단지가 없음”은 필요성 제기로서 미흡
- 수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 수요 창출적 조건 마련 및 제시가 필요
- 조건 마련에는 실질적 시행방안 필요
  - 산업단지의 효과 인식
  * 지역, 주민, 기업, 국민경제
밀양 산업단지

수요는 있는가

- 입주의향: 8.8%
  - 의향있음: 3.0%, 긍정적으로 검토: 5.8%
- 관심은 있으나 아직은 모르겠음: 11.0%

※ 수요는 있으나 검증 필요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 수요유형: 기존 기업 이전 수요 + 신규수요(창업)
- 총 수요: 974천평 (약 100만평, 잠정추정치)
  - 이전 수요(A)(807천평) + 신규수요(B)(167천평)
  * 중소기업 중심 입주 기준으로 추정

※ 잠정 추정치로서 추후 검토필요
밀양 산업단지

(A) 이전수요: 807천평
- 기업당 평균 수요 규모 800평으로 가정
  * 800-1,000평이 최다 선택
-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 5,000개 (2만개 가운데 25%)
  * 이전 대상 기업: 부산, 경남, 충남, 대구에서 이전 가능
  * 부산, 경남, 충남, 대구의 총 기업수: 20,000개로 가정
    (상기 중 25% (24.8%)가 이전 고려 기업)
  * 수도권에서의 이전: 없음 가정
    (수도권기업의 경남이전 실적: 0.2%, 2000-2006)
- 밀양지역 이전 의향 기업: 605개 (의향기업 + 관심기업 일부)
  * 의향 기업: 440개 (5,000개 * 8.8% = 440)
  * 관심 기업: 165개 (5,000개 * 9.9% * 1/3 = 165)
- 이전 수요(부지 기준): 484천평 (605개 * 800평 = 484천평)
- 단지기준: 807천평 (공장용지율: 60% 가정)

(B) 신규수요: 167천평
- 신규기업 100개로 가정
- 신규 기업 수요(부지기준): 100천평
  * 100개 * 1,000평 = 100천평
- 단지 기준: 167천평 (공장용지율 60%가정)

밀양지역에 대한 관심 사유

- 분양가 저렴 가능성이 가장 큰 사유
  - 이어 대도시권 인접, 향후 발전 가능성 등

* 밀양 첨단산업단지 입주 희망 이유(설문결과)

- 분양가 저렴 62.1%, 대도시권(부산, 대구 등)
- 인접 13.0%, 향후 발전가능성 10.0%, 기타 14.9%
밀양 산업단지

밀양 지역 기피 사유

- 협력업체와의 먼 거리는 절대적 요인
  - 이어 교통여건 열악, 인력확보 곤란 등임

밀양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피 이유(설문결과)

- 협력업체와의 먼 거리 64.6%, 교통여건의 열악 9.6%, 인력확보의 어려움 7.0%, 기타 18.8%

※ Anchor 기업(예: 대기업 등)을 유치할 경우 연계 기업이 다수 입지할 가능성이 큼

밀양 산업단지

현재 애로 사항

- 정책적 지원 미흡, 부지 확장 어려움, 인력 확보 곤란 등

현 소재지에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설문결과)

- 세금 및 정책 지원 부족 20.4%, 인력확보의 불편 12.7%, 부지확장의 어려움 12.8%, 기타 54.1%

※ 관련 정책지원의 필요
밀양 산업단지

이전 시 고려 사항

- 양호한 교통 여건을 가장 크게 고려
  - 이어 저렴한 지가, 부지 확장 가능성, 시장 및 관련
    기업 인접성 등 적극 고려

우선적 고려사항 (설문결과)

-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양호 33.7%,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17.0%, 부지확장의 가능성 14.1%,
  기타 35.2%

양호한 교통 등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

필요 시설과 기능

- 금융 부문을 가장 중시함, 이어 기술연구소 등 R&D 지원과
  병원 등 복지 지원 기능

단지 내 필요한 지원시설(설문결과)

- 금융기능 43.0%, 종합상가 9.0%, 기술 연구소 6.6%,
  병원.보건지소 3.7%, 유통(운수)회사 2.7%, 기타 35.0%

Producer Service (생산자 서비스) 기능 중시
밀양 산업단지

이전시기

- 5년 이내가 90%(대부분)

* 이전 예상 시기(설문결과)

- 2008년 25.7%, 2009년 19.1%, 2010년 22.8%, 기타 32.4%

※ 조기 또는 적극적 추진 필요성 시사
※ 조심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

밀양 산업단지

지역연계

- 부산, 경남, 대구 등과 중심적 연계

* 지역 연계(설문결과)

- 부산 20.9%, 경남 19.9%, 대구 19.7%, 기타 39.5%

※ 높은 지역 연계를 보임
※ 지역 연계 산업 도출 필요
### 우선적 인센티브

밀양 산업단지

<table>
<thead>
<tr>
<th>지방세 감면, 교통 주거 등 인프라 확충, 분양가 및 이전 자금 융자 기대</th>
<th>인센티브 제공 시 입주 의향 9.9%</th>
</tr>
</thead>
</table>

밀양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인센티브(설문결과)

| 지방세 감면 36.5%, 교통.주거환경 등 인프라 확충 21.6%, 분양가 및 이전 자금 융자 19.6%, 기타 22.3% |

※ 매력적인 인센티브 구축 필요

※ 막대한 투자비 필요

※ 직접 제공(지방세 감면)도 있으나 간접 제공 또는 제3자의 제공 도모 필요

### 희망공 공지 원

밀양 산업단지

<table>
<thead>
<tr>
<th>세금 및 부담금 감면을 크게 원함</th>
<th>이전 토지 건물 이전비 지원 등을 기대함</th>
</tr>
</thead>
</table>

이전 시 희망 공공지원 사항(설문결과)

| 세금 및 부담금 감면 58.9%, 토지 건물 이전비 지원 22.0%, 이전에 따른 규제 완화 6.9%, 기타 12.2% |

※ 이전에 따른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
밀양 산업단지

밀양의 경쟁 상대는 어떠한가?

- 김해 창원 특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대 존재
  - 강력한 “경쟁”상대 존재의 실질적 인식

- 지역별 선호
  - 김해 25.7%, 창원 20.7%, 밀양 7.7% 등

※ 경쟁 지역보다 “좋게”(입지요건) 해 주어야!

밀양 산업단지

기본방향

- 지방 중심의 추진
- 수요 창출적 접근
- 대도시 인근이라는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 고려
- 적절한 시기와 효과적 방법의 필요
밀양 산업단지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필요
- 상대적 경쟁력의 확보
  - 파격적 지원조건 및 애로사항의 해소
    - "안 오겠다"는 요소의 해결

적절한 시기 선택의 필요
- 전체적 공급과잉도 우려

적절한 시기 추진
- 엄밀한 수요 추정 및 결과의 활용

폭넓은 수요의 고려
- 이전뿐만 아니라 신규도 중시
- 수도권도 적극 고려

도시마케팅의 적극 추진
- 홍보의 중요성(Place marketing)
- 신규 입지 요인의 적극 홍보(예: 공항 설립 가능성)

지방산업단지 유형으로 추진
- 국가산업단지 기능의 역할 변화

밀양 산업단지

역할분담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앙
  - 지원: 지원 시스템 필요
• 경상남도
  - 지원
  - 조정
• 밀양시
  - 중심적 역할
  - 공공기관(예: 토지공사 등) 등의 기반시설 투자 유지
  - 대기업 유치
  - 적극적 홍보
  - 엄밀한 분석 바탕으로 추진
VI. 맺음말

• 필요란가?
  - 조건적 동의
• 가능란가?
  - Not impossible!, but very difficult
  - 맨 땅에 헤딩 느낌” → 파주를 보라
  - 수요 창출적 접근 필요
  - 대기업, 외국인 투자 등
  - 돌아오는 외주투자 기업 수용
• 조건은?
  - 상대적 매력요인 확보 필요
• 어떻게?
  - 인근에 대도시(수요, 공급)가 있음을 활용
  - 시지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 Sale 필요

• 구체적 추진방안 및 “어디에” (구체적 입지 선정)는 추후 연구